

우리네 아이들

보육활동의 길잡이

2002 01/02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2275-8505
FAX : 2275-8506
e-mail: kdta@chollian.net
홈페이지: www.kdta.or.kr

어린이 권리선언문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든지, 그리고 피부색이 어떤간에, 남자이든 여자이든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인가 아닌건, 부유하건 가난하건간에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 모두는 이 선언문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어린이마다 지니는 개성이 존중되고,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아로 취급받지 않으며, 다양한 발달과정과 그 속도의 차이가 인정되며,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이만의 독특한 사고체계를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1.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어린이가 어른들의 칭찬과 꾸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과, 어린이의 의사가 어른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존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어린이는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마음껏 노는 것은, 다양하고 자극이 많으며 위험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어른이 가르쳐주는 말, 행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대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의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안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정된 보호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되는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회로부터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항상 부모, 사회로부터 적극적이고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도움을 받을 권리, 폭력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친구를 사귈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격려받고 피부색이 다른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관계를 가지며 신뢰감과 애착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편안하게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질 권리와 균형있고 공해 없는 음식을 먹을 권리, 충분한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공간과 어른의 도움없이 어린이 스스로 배설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연 속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햇빛과 바람을 맞고 흙놀이를 할 권리, 옷버릴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가 있다.



우리네 아이들

창간 85호 2002년 01/02월호

창간호 1992년 5월 25일/

펴낸곳 한국보육교사회/펴낸이 이윤경/

등록인 이경녀, 김희정/펴낸날 2002년 1월 15일

2	권두언	새로운 한 해를 또 다시 시작하며..	서은희
4	새해에 날아온 편지	신년 메시지	편집부
12	보육정책	보육교사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통한 보육의 질 향상방안 연구 요약	이윤경
22	현장교육 1	오감을 통한 미술활동 '나무 그림 그리기'	이민재
24	현장교육 2	통일교육- 우리는 함께 사는 친구들	김수연
42	현장교육 3	우리 나라의 절기와 세시풍속	전경숙
48	현장소식 1	서울지부 회원의 날 기념 '겨울 기차여행' 후기	주혜신
49	현장소식 2	중간 간부 수련회를 다녀와서	김순아
52	현장소식 3	중간 간부 훈련을 다녀와서	최은하
54	인물탐방기	부지런한 태음인-고영미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선주
58	어린이와 건강	어린이집에서의 건강일지	안경자
62	육아상담 Q&A	육아 상담	편집부
66	아이들의 세상만들기	한미어린이집의 아이들	오윤정
67	육아일기	새소연이의 끝말잇기	전경숙
69	좋은 그림책소개	황소아저씨	오윤정
71	세상읽기	21세기의 전쟁과 세계의 바람	박상희
73	사이버정보망	전통교육을 위한 사이트	편집부
89	목소리	'우리네 아이들'을 말한다.	편집부
91	알림단		편집부
92	보육계풍망		편집부
94	소식과 소식		편집부

새로운 한 해를 또 다시 시작하며...

서은희 · 본회 공동대표

2002년 壬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다며 조금은 흥분되고 마음이 들떠 맞이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 해는 비교적 차분하게 새해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1년 365일. 그 다음 날은 366일. 그러나 우린 366일로 그 날을 맞이하지 않고, 새로운 해의 첫 날로 그 날을 맞이합니다. '시작' '새롭게' 라는 말들을 통해 흐트러져 가는 우리네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추스리는 기회를 매 년 갖게 됩니다. 올 새해 첫 날, 첫 주, 첫 휴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올 360여일을 희망차게 알차게 보람되게 살아야지 하는 자기 다짐을 하면서 보내셨습니까?

얼마 되지 않은 나이지만 저는 해를 거들할수록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 어느 때부터인가 땡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성과 타성에 젖어들려는 경조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경조가 깊어져 큰 병이 되지 않도록 초기에 펼쳐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겠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는 '보육의 질'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해왔습니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사안 중 한 부분을 차지하는 '교사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 해 우리 회는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 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들이 보육현장에 몸담고 있는 당사자들이기에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것보다도 더 열악하게 나타났습니다.

올 해 보육교사회는 작년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보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

기 위한 '보육교사 처우 개선 활동'에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몇몇 사람들의 움직임으로는 그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육교사 당사자들인 우리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의견을 개진하고 요구해 나갈 때 그 힘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지방의회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각 지역마다 보육조례를 제정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보육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육에 대한 관심과 생각이 있는 지역 의원들을 선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육조례 제정과 보육에 식견이 있는 후보를 뽑는 일은 보육의 질을 아래서부터 끌어올리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지역 후보들의 보육에 대한 정책이나 생각을 알아보는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 어린이집의 부모님들과 후보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신중하게 선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책을 읽다보니 이런 글이 있더군요.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과 길을 걸으려면 누구와 함께 걸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하루만 살라고 하면 그 날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 사랑하려면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단어만 가슴에 품으려면 어떤 단어를 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 마디만 하라고 하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

우리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한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들입니까.

(좋은생각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가 아니라는 것. 이런 진리를 일상에 찌들어 알지 못하고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우리 모두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오년 첫 시작할 때 그 마음으로 올 한 해도 늘 새롭게, 감사하며, 나누며 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날아온 편지

2002



서은희 (본회공동대표)

신사년의 마지막 월요일 겸,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이,
아침부터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여 있는 것이 기상대 예보 대로 오후부터 눈이 올 징조인가 싶네요.

언제인가부터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이 나도 몰래 '휘휘 휘' 지나가는 것 같아 이렇게 오늘처럼 한 해의 끝장을 넘길 때가 돌아오면 마음 한 구석이 어찌 '헉' 함을 느낍니다.

내년은 말들의 해네요. 제 주변에는 말띠 여인들이 아주 아주 무지무지 많이 있습니다. 옛 어른들은 여자가 말띠면 팔자가 드세다고들 하셨지만, 제가 알고 있는 말띠들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열심히 살아가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 한 해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질주하며 땀흘리는 아름다운 말처럼 우리 모두 그렇게 씩씩하게 열심히 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임오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사무국 식구들! 올 일년뿐 아니라 늘 그렇지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머리가 아닌 몸으로, 가슴으로 뛰어드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보육교사회가 이마만큼 굳건하게 중심을 잡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이겠지요.

내년 한 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진 환경 속에서 사무국 식구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아래의 글은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의 회원 목소리를 통해 회원여러분이 보내 주신 신년 메시지입니다.

매년 연말이면 편지와 카드가 사무실 수북이 쌓였는데 올해는 회원 목소리에 새해맞이 편지가 가득하네요. 아래의 덕담들처럼 올 한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이기원 (본회공동대표)

한해를 보내면서
무심코 '가나보다...' 하며 보낸 적도 있고 신나게 놀다가 연말을 보낸 적도 있었구요.
올 한해 마무리하며
11월 남원에서 있었던 중간간부연수 때 보여주셨던 일꾼들의 모습을 다시금 떠올립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자기 삶을 수놓고 계신 일꾼들의 모습에서 보육교사회의 희망을 안아봅니다. 또 한해 지나면 총회 때 함께 모여서 서로의 건강한 삶을 나눌 회원들을 기다려 봅니다.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항상 따뜻한 시선과 믿음으로 채워주시는 여러분의 모습에서 말띠해를 맞이할까 합니다.



전경숙 (경기지부회원)

새해가 오고 말았구만요.
사실은 지가 연말 경품대잔치 스무고개 문제를 냈었는데 문제 다 내고 인사말 쓰고 엔터를 치는 순간 순식간에 다 날아간 거 있지요?
너무나 허탈해서 자리를 뜰 수가 없었어요.
지가요 조만간 신년맞이 경품대잔치 스무고개를 낼 터이니 기대해 주세요.
새해에는 두루두루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모든 일 잘 되시고요 저처럼 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은 지금 몸무게에서 5kg만 더 빠지세요. (히히)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윤 경 (본회공동대표)

사랑하는 한국보육교사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한국보육교사회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고영미 선생님 말처럼 돈도 많이 많이 생기시고...
또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이 짧아져서 소모임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권익향상을 위한
여러 활동에 참여도 할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혼 못한 사람들은 결혼하고

결혼 안한 사람들은 연애하고

연애 못한 사람들은 애인이 생기고

연애 안한 사람들은 돈이라도 많이 벌고

돈 못 버는 사람들은 돈이 막 생기고

돈 안 버는 사람들은 더 좋은 일에 시간을 쓸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기고.

(주: 못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할 때

안 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 의지로 발생한 것일 때)

아이디어도 안 생기는 사람은 건강하기라도 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해지고

건강 안하고 싶은 사람은 놀기라도 실컷하고

놀지도 못하는 사람은 일할 꺼리라도 생기고

일거리도 없는 사람은 공부할 꺼리라도 생기고

그래서 모두 모두 뭔가 하나씩은 쟁취!하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김 정 애 (부산지부 회원)

집안 일로 연말 연사를 사골에서 뭉땅 보내고 와서 보니 새해라고 하는군요.
보내는 것도 맞는 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가 너
무 생소하게 느껴졌어요.

새해가 왔네요, 정말!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맞은 새해지만 올 한해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마음 먹어봅니다.

보육교사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회원이 아닌 분들도 올 한해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한 상
태를 유지해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김 명 선 (부산지부장)

새해 인사가 너무 늦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말이 쑥스러울 지경이네요.
그래도 받을 복은 받고 줄 복은 줘야겠지요. 복 많이 받게 애써봅시다!

2002년도 우리 힘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봅시다. 열심히 사노라면 좋은 날 반드시 올 것
입니다.

신년회 자리에서 아름다운 덕담과 소망도 나누고 액땀판도 벌여 선생님들과 보육교사
회도 우리 아이들과 어린이집 더 나아가 우리 민족 내나라, 내거레에게 끼어드는 온갖 나쁜
잡귀 잡신 액들을 짹짹 쏘아 냅시다.



황 호 정 (서울지부 사무국장)

선생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많이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서울지부에도 좋은 일이 많이 많이 생기고 회원들간에 많이 많이 친해졌으면 좋
겠습니다.

희망찬 새해 되세요!



류 지 민 (인천지부 회원)

안녕하세요~ 지민이가 왔어요.. 지금 밖이 너무나도 이쁘네요...

하얀 함박눈이 펄펄... 내리는 광경이... 세상이 이렇게 이쁠 수도 있구나... 를 창 밖을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해해~ 선생님들도 지금 눈을 보고 있겠죠??

하얀 눈처럼... 행복도, 기쁨도, 소복소복 쌓이길 바랄게요... 이젠 2일 남았네요..

올 한해가 지치고 힘들었다면, 다가오는 2002년은 힘껏 안아줄랍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새해엔 가슴속에 품었던 희망꽃들을 모두 피우시길 바랍니다. 해해
해... 놀 웃는 거 알죠? ... 요렇게!

오늘도 해피데이~!!!!!!!



최은하 (인천지부 회원)

안녕하세요?

여러 회원 여러분! 새해에는 몸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당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힘찬 새해를 맞이하세요.



고영미 (경기지부 조직부장)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만 지나면 35살이 됩니다. 마음이 이상해지네요.

회원여러분들 모두모두 건강하시고 더욱 열심히 사세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행복하시고 이왕이면 주머니 사정도 여유로워지면 더욱 좋겠구요.

저는 대둔산(어쩌면 계룡산이 되겠지만)으로 해맞이 하려합니다.

우리 모두의 행복을 빌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 우리민족 통일되게 해주시고 우리 보육교사회 날로 번창하게 해주
시고, 우리 모두 앞으로 잘먹고 잘살게 해주소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느님 왈 "앞으로 80년만 잘먹고 잘살아라. 아프지도 않을 것이며 통일도 반드시 될 것
이야. 걱정 말거라. 그리고 특히 보육교사회는 더욱 그러할 것이야"

이이고! 감사합니다.



김진숙 (서울지부장)

복 많이 받아서 많이 많이 나눠주세요

말처럼 힘찬 발걸음으로 신나게 달리며 지냈으면 하네요

한해를 돌아볼 때마다 참 잘 살았구나, 좋은 일이 많았구나 했으면 해요

아픈데 없이, 슬픈 일 없이, 화나는 일 없이, 나쁜 일 없이 살아갔으면 하구요

깨어 있어서 새로운 기운 많이 받으세요



임미란 (회원)

크리스마스 이전에 우리 아이들 선물에 대
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지요.

그러다 이웃집 준호엄마가 내게 물었어요.

"자기는 산타할아버지한테 무슨 선물 받고
싶어?"

갑자기 쿵! 머리를 때리는 소리 나고, 생각
해 보았죠.

그러다 대답했어요.

"하안----- 천만원쯤만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다." "푸히히히-----"

"그러니까 산타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시
는 거야."

"그런 자긴 무슨 선물 갖고 싶은데?"

그녀가 고민에 잠기더니 하는 말,

"돈 많은 남자!" "크하하하-----"

어른들은 이래서 안 되나봐요.

그래서 미리미리 포기하잖아요.

난 당연히 선물 안 받아 하구요.

내가 잃어버린 권리

잃어버린 동심.

그거 다시 찾을 수는 없을까요?

그러구서 그날에 전 산타할머니에게

너무 이쁜 커플터를 받았어요.

그녀는 정말 이뻐요.

항상 날 감동 시키거든요.

그러나 전 그녀에게 해주는 게 없어요.

하는 것이라곤 맨날 밥만 먹이죠. 키히히
하----

"자가야----(느끼하게) 고마와!"

여러분 배 아프죠?

텔레비전에 보니 00카드 광고에서 이쁜 아
가씨 나와서

빨간 옷에 하얀 모자 쓰고 "여러분 돈 미안
히 버세요!"

하고 들어도 들어도 기분 안 나쁜 소리 하드
라구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려구요.

왜냐구요?

이제 새해잖아요.

"여러분 새해엔 돈 미안히 모조리 다 버세
요! 그 돈 다 쓰고 죽을 만큼 건강하세요!

그 돈 즐겁게 쓸 수 있도록 행복하세요!

즐거운 나날들로 가득 차서 입술을 귀에 걸
고 다니세요!

아이들과 즐겁게 즐겁게 내가 즐겁게 그렇
게 사세요."

"아이들이!

힘차게 힘차게 살자!

에미 에미 선생이 기를 죽여도 기죽지 말자!

공부하라고 악다구리를 해도 많이 놀자!

삐뽤가 되자!

모험을 즐기자!"



권혜진 (회원)

올 한해도 보육교사회는 힘들고 어렵지만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도 해냈네요. 모두 모두
사무국 식구들과 회원들의 땀+피가 아니겠습니까?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구요, 행복하시길 기원할게요.



남미영 (본회전회장)

보육교사회 동지들!!

2001년 한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육교사회를 든든히 지키고 다시 새로운 한해를 맞을 수 있게 된 것, 모두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2002년은 '달' 띠해라지요.

달따해에 달을 안 낳으려고 미친 몸부림들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2002년 보육교사회는 부드러운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진취적인 기상으로

보육교사회의 지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최순옥 (본회전사무국장)

새해를 맞는 기도

새해에는 똑같은 일로 속 끓이는 일이 없도록 하옵시고,

사춘기를 맞은 딸이 소리치는 일이 없도록 하옵시고

조기교실 아이들의 말문이 트이도록 하옵시고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의 건강과 여유를 살피주옵시고

3년 후쯤 인도여행을 다시 가게 해주옵시고

기타 등등 기타 등등

모두들 안녕! 나도 안녕



오윤정 (서울지부 회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일어나 씩씩거리며 "엄마, 산타가 노망났나봐. 왜 선물 안 놓고 갔대?" 하니까 엄마와 내 남동생의 표정을 봐야하는데...

거의 재가 실상을 했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산타에게 선물을 받고 싶었는데 늦게라도 가져다 주려나하고 기다렸는데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착한 일 많이 해서 꼭 산타에게 선물 받아야겠어요.

여러분도 올해는 산타 선물 받으시길.

그럼 올해도 아프지 않고 잘 지내시길.



정희연 (본회전회장)

언제부턴가 연말과 새해를 맞을 때 올해를 어찌 보낼 것인가 다짐하는 바가 소박하게 되고 있습니다. 너무 큰 목표를 잡아 연말결산시 실망을 많이 하게 될 경우를 피하고자 하는 마음 일까요? 아니면 인생의 연륜이 쌓여 할 수 있는 만큼만 지혜롭게 계획을 잡게 된 것일까? 생각해봅니다. 아무튼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 또 2002년, 새해를 맞아 멀리서 회원 여러분께 인사보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시라고요.

어느 한들 중요하지 않은 해가 없겠지만 멀리서 듣기에 올랜 정말 여러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군요. 전체 보육교사회로 보나 지부지회로 보나 말이지요. 종종 우리 홈페이지에 들러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읍니다. 특히 가끔 올라오는 지부지회 소식이 나를 아주 기쁘게 합니다. 다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그에 걸맞는 결과물들을 나누고 있구나 하는 마음에서요. 정말 다들 잘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터에서 그리고 개인생활에서 모두들 최고의 성과를 얻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비록 멀리 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보육교사회가 가는 길과 함께합니다. 그건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구요? 왜냐하면요 "한번 보육교사회면 영원한 보육교사회"이기 때문이지요.

다시 한번 새해인사 말을 드립니다.

언제나 행복한 마음으로 항상 최고의 순간을 맞는 기쁨으로 한해를 보내시길.

보육교사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통한 보육의 질 향상 방안 연구 요약

정리 이윤경 · 본회 공동대표

한국보육교사회는 2001년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861명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근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복지부의 연구용역으로 진행되었다. 본 조사는 이후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만들어내는데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에 조사내용과 이후 처우개선의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본 조사는 보육교사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직업인식 및 만족도, 건강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전국에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단체, 개인, 가정, 직장보육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86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를 위해 질문지 구성, 예비조사, 자문회의, 본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통계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I. 설문조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 (1) 보육교사의 연령 > 20대-63.4% / 30대-29.6% / 40대-6.9%
- (2) 보육교사의 학력 > 2년제 대졸-48.2%(국공립시설은 61.5%) / 고졸-29.4%(가정보육시설은 52.0%, 개인보육시설은 51.2%) / 4년제 대졸-20.9%
- (3) 보육교사 평균경력 > 국공립시설-50개월(4년2개월) / 개인민간시설-38.2개월(3년2개월)

보육교사들의 연령은 주로 2,30대이고 학력은 2년제 대학이상이 70%정도이나 국공립시설과 개인시설, 가정시설간의 학력격차가 크게 나타남.

2)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교사 1인당 담당하는 아동의 수가 만 3세-5세 연령 대에서는 기준치 1:20과 거의 일치하였지만 만0-2세의 연령대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다. 특히 만 2세 이하의 연령대에서 개인

보육시설의 과밀현상이 가장 두드러졌다.

보육교사의 업무내용 중 청소, 설거지, 세탁 등 기타 잡무분야를 담당하는 경우가 조사대상자의 30%정도로 나타남. 담당 업무량을 평가할 때 2/3가량이 평소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3) 보육교사의 근무조건

- (1) 보육교사의 평균근무시간 > 평일-10.6시간, 토요일-6.3시간, 주간 근무시간-59.3시간
노동법기준(44시간)으로 보았을 때 주당 15.3시간 초과
보육사업 지침(50시간)으로 보았을 때 주당 9.3시간 초과
- (2) 보육교사의 평균급여 > 국·공립보육시설이 99만3천원, 법인·단체가 87만8천원,
개인보육시설이 66만3천원, 가정보육시설이 71만3천원
- (3) 보육교사 초봉 평균 > 국공립시설-93만원/ 법인·단체-79만6천원/ 직장-85만원
개인보육시설-61만6천원/ 가정보육시설-55만원
- (4) 60만원이하 급여를 받는 비율 > 법인·단체-5%/ 개인시설-18.6%/ 가정시설-25.5%

4) 보육교사의 후생복지

- (1) 퇴직금제도가 있는 시설 > 개인시설(30.8%)/ 가정시설(9.5%)/ 직장시설(97.4%)과 국·공립시설(93.3%), 법인·단체시설(81.6%)
- (2) 평균 연차휴가일수 > 10.8일 - 조사대상보육교사의 평균근무경력이 3.5년이라고 할 때 보육사업안내규정에 의하면 16일의 휴가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기준에 못 미침.
- (3) 복무규정 > 있다-42.6% / 없다-32.8% / 모르겠다-24.6%
국·공립시설과 직장시설은 약 62%가 복무규정이 있었으나 개인시설은 21.0%, 가정시설은 27.9%만이 복무규정이 있었다.
- (4) 4대 보험가입 유무 >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산재보험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가입률이 64.7%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건강보험(57.0%)과 국민연금(63.7%)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의 경우는 국공립의 경우 91.4%가 가입되어 있는데 비해 개인시설(50.8%), 가정시설(37.5%)은 가입이 저조하였다.

5) 의사소통 구조

정기적으로 교사회의를 한다는 응답이 49.4%로 나타나 정기적인 교사회의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교사회의의 방식 중 원장의 일방적인 지시나 전달 형식이라는 시설이 평균 24.6%이고 개인

시설은 32%로 민주적인 의사소통구조가 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교사회의 내용은 행사지도와 보육내용, 생활지도의 순서로 나타났다. 국·공립 및 법인·단체 보육시설은 행사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정시설은 생활지도가 우선, 행사관련 내용은 낮은 응답을 보였다.

6) 보육교사재교육

일반 교사연수에서 보수교육이나 승급교육이 일반강습회보다 더 많은 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반강습회 교사연수는 개인보육시설의 1/4, 가정보육시설의 절반 가량이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연수 참가 횟수는 1년에 1회 이상 연수에 참가한다는 응답을 합하면 75.5%가 된다. 나머지 24.5%는 2년에 한 번 또는 참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해서 3/4 정도만이 정기적인 연수에 참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연수에 참가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대체교사를 구하기 어려워서(41.3%), 일상업무에 따른 피곤함(23.8%), 연수에 대한 정보 부족(15.1%) 때문에 연수에 참가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교사가 연수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대체교사가 필요하고 일상업무가 줄어야 하며 교사연수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교사연수를 받은 후 교사가 느끼는 교육적 효과는 매우 또는 약간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을 합하면 91.5%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7) 직업인식 및 만족도

보육교사로서 어려운 점은 장시간 근무, 낮은 임금, 보육교사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을 꼽았다. 정부지원시설인 국·공립과 법인, 직장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장시간 근무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개인과 가정시설에서는 낮은 임금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지적하였다.

보육교사들의 만족도 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는 휴가제도, 초과근무수당, 상여금과 퇴직금, 사회보험의 가입 등의 복리후생 수준이었는데 이는 보육교사의 조건들이 열악하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두 번째로 만족도가 낮은 분야는 근무시간이고 만족도가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는 담당 업무와 직업적 전망분야이다.

보육교사들은 이직 경험이 있는 경우가 약 40%로 이직이 비교적 잦은 편이다. 시설 유형별로는 직장 보육시설의 교사들이 이직 경험이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횟수는 평균 1.77회로 대개 2년마다 보육시설을 옮긴다고 할 수 있다.

보육교사들은 절반이 넘는 58.8%가 보육교사를 그만 두는 것에 대해 자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 보육교사의 건강 실태

정기 건강 검진 실시 여부를 보면 아직도 교사의 1/3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기회가 없었다'는 응답이 57.3%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모르고 있었다' '무성의한 건강검진을 불신하는 것' 등으로 나타났다.

평소 건강관리 방법을 살펴본 결과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32.4%로 가장 많았다. 또한 많은(64.8%) 보육교사들이 '근무 이후에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렇게 건강이 나빠진 이유로는 장시간 근무 때문에(34.7%), 적당한 휴식 시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26.2%), 교사 1인당 아동수가 많아서(12.4%)의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II.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사의 근무 실태 및 만족도, 건강 실태 등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전반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육교사의 근무조건, 근무 환경, 후생 복지, 고용 및 계약, 직업의식 및 만족도, 건강 실태 등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보육교사의 근무 기준을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사업 지침에 제시된 규정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관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보육교사의 근무 부담이 과중하고 근무 환경이 열악한 것은 이들의 근무 조건이 관련 법령이나 보육사업 지침에 제시된 규정이 준수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원인이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교사대 영유아 비율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

특히 영아 대 교사 비율이 높은 경우는 다른 연령에 비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신체적 노동이 상당부분 요구되는 영아보육에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높은 것은 그들

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조사에서 0세부터 2세에 해당하는 영아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경우 담당 유아수가 기준치보다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기가 인격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도 교사 대 영아의 비율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둘째, 최소한의 휴가 사용과 초과 근무 수당 지급, 건강 검진 등 기본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보육교사들은 월차의 사용은 거의 어려운 실정이며 연차 사용 마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휴가 시 대체할 만한 교사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2000)에서 제안하였던 방안대로 각 지역의 보육정보센터에 보육교사 인력풀을 만들어 필요한 보육시설들에 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보육교사가 휴가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출산 휴가 역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보장되지 않아 보육교사를 사직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실태조사를 진행했을 당시는 60일 동안의 출산휴가를 권고조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올해 11월부터는 90일의 출산휴가가 강제조항으로 변경되었지만 앞으로 조항대로 보육교사가 제대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길 바란다.

본 조사에서 보육교사들은 평균 11시간 가까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초과 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시설은 불과 17%에 불과하였다. 보육교사의 장시간 근무는 보육교사의 근무의욕과 역량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의 준수와 이에 따른 보완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반상근 교사의 확보와 이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초과근무 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보육교사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도 필요하다. 현재의 기준은 매년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보육교사들이 많은 수의 아동과 함께 생활하면서 나타나는 건강의 이상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건강진단 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보육교사는 안전, 건강, 퇴직 후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본 조사에 따르면 정부지원시설에서조차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개인 보육시설과 가정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보험 가입율이 매우 낮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없어 그들의 미래생활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 및 가정보육시설은 퇴직금이 없는 경우가 60-90%가 된다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겠으나 시설장의 무지로 퇴직적립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는 개인 및 가정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판단과 감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보육교사의 교직 수행을 위한 기본 조건에 대해서는 시설의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규정에서 최저수행 기준을 제시해주는 방향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보육사업지침에 제시한 급여 수준, 경력 인정, 복무 규약의 문제에서 대해 '시설장의 형편에 따라' 또는 '시설장이 종사자와 협의하여 해당 보육시설의 재정 형편에 맞게'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본 조사에 의하면 이들 문제에 대해 그 여건이 매우 열악하며 시설 유형에 따라 매우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특히 근무 여건이 열악한 개인 및 가정 보육시설에서 우수한 보육교사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들 시설의 질적 수준이 보장되지 않는 매우 중요한 원인이다. 전체 보육교사의 47.3%(1999년 자료)가 개인 및 가정 보육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는 여건에서 최저수행 기준마저 제시되지 않는다면 전체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제도적으로 최저수행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급여 수준에 대한 최저 기준선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모든 시설에서 교사의 기본적인 근무 조건에 대한 복무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 조사에서 보육교사의 복무규정이 있는 경우가 전체 42%에 불과하였다는 것은 아직 보육교사라는 직업이 직업적인 안정성이 없음을 말해준다. 복무 규정은 근무 시간 등의 근무 조건, 승진과 보수, 휴가 등의 후생복지, 재교육, 교사의 권리와 의무와 같은 중요한 요인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규정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시설 유형별로 차이가 나는 처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에 있어 시설 유형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급여수준이나 상여금,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국·공립이나 법인·단체·직장과 같은 정

부지원시설에 비해 개인시설이나 가정시설의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열악하다.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준의 제시와 함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보육 교사가 정서적 안정감을 갖고 효율적으로 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한 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는 주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입장을 위한 시설 환경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시설 안에서 아동과 함께 생활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교사들의 입장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하루종일 시설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보육교사들의 경우 신체에 적절하지 못한 설비의 크기는 오히려 피로와 건강상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성인용 변기나 세면대 마저 없는 시설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불과 20%에 불과하더라도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보육교사의 근무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는 연구조차 미비한 실태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와 함께 개선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육교사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첫째, 부당한 처우나 불법 운영을 하는 시설에 대해 상담, 고발 처리 할 수 있는 고충처리 센터가 마련되어야 한다.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첫째,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과 직업적 안정성을 위해 모든 교사에게 재교육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보육교사의 전문적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교육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재교육시간 및 프로그램의 강화에 앞서 휴가 시 대체교사 사용과 마찬가지로 정보센터의 인력풀 제도를 마

련하여 모든 교사가 재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재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재교육 프로그램으로는 급변하는 사회와 지역마다의 요구되는 보육 특성을 반영하기는 매우 어렵다. 각 지역사회마다 보육교사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재교육 할 수 있도록 각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크를 형성 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부서)가 필요하다. 요구하는 교육 내용이 같은 교사들간에 연구 소모임을 주선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재교육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육교사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현재의 기준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보육서비스와 관련된 현재의 기준은 보육교사의 근무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어려운 수준이다. 특히 1994년 보육시설 및 보육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완화는 보육시설의 정원을 늘리는데는 기여했지만 교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육의 질을 악화시키는 조치였다. 보육의 질과 교사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기준들이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첫째, 보육교사의 급여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현재 보육교사의 급여는,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원 기준'을 참조하여 시설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인건비 지원 기준 자체가 동일 학력, 유사 직종의 인건비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에 재량권을 부여한 결과 이 기준에도 미달되는 급여를 받는 교사의 비율이 높다. 이 때문에 전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는데 인건비 지원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하며, 지원기준 자체도 높여야 한다.

둘째, 교사 대 영유아비율이 재조정되어야 한다.

현재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은 장시간의 근무시간과 함께 교사의 근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0세나 2세 미만의 영아는 교사의 육체적 부담이 큰 연령으로 1:5 또는 1:7로는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3세 이상의 경우에도 1:20의 비율로는 개인별 발달정도에 따른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보육교사 1인에 대한 영

유아의 수가 최소 1:3, 1:5, 1:15 이내로 조정되어야 교사의 근무 부담을 줄이고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체교사제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보육시설은 규모가 크지 않다. 이는 교사들의 수도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휴가나 재교육 등으로 일시적으로 교사의 결원이 생길 경우 대체인력이 마련되지 않으면 다른 교사의 부담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초과근무, 재교육, 휴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대체교사제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시설의 부담으로 할 경우에는 비용부담으로 인해 활용하기 어렵다. 지역별로 인력풀을 마련해 시설의 부담 없이 대체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보육교사가 보육업무에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시설의 관리, 유지·보수 위한 인력을 시설 크기와 관계없이 보육시설 종사자에 포함시켜야 한다

보육서비스는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과 보육교사,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과 보호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고 상충되는 분야이다. 현재는 보육서비스의 부담을 보육교사가 대부분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이 열악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교사의 만족도가 저하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사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설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훌륭한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이 직업에 만족감을 갖도록 하는 데에는 보육교사가 전문직이라는 자부심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 본 조사에서 보육교사가 담당하는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청소, 설거지, 세탁 등 기타 잡무에 해당하는 비중이 약 1/3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동 및 그들의 가족과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보육활동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우며,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나 만족감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보육관련 업무 이외에 여러 가지 잡무의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행정 및 시설의 관리, 유지를 위한 인력을 시설 크기와 관계없이 보육시설 종사자에 포함시켜야 한다.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결국은 비용의 문제이다. 위에서 언급한 개선 방안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육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보육비용을 보육료로 전부 학부모에게 전가하게 되면 부모들의 보육료에 대한 부담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이 보육 비용의 부담 책임이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으며 정부는 일부 시설과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방식이 유지되는 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별로 없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개

선하고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의 보육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다.

III. 정책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

한국보육교사회는 조사된 실태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2001년 12월 8일 진행하였다. 다음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 1) **어린이집 교사** - 보조교사나 반상근 교사 등 업무분담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고 적정 임금과 휴가의 보장, 자격증제도를 통해 전문직으로서 사회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는 것이 시급하다
- 2) **전국어린이집·놀이방 연합회** - 보육교사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수 등 근무조건의 보장만이 아니라 꾸준한 재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관련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연수교육에 포함시키고 연수교육 시 대리교사 충원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
- 3) **한국여성노동자회 연합회** -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의 법적 권리 확보를 위한 주체의식 강화와 조직화가 선결과제. 보육정책의 변화와 발전이 보육교사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4) **전교조 유치원 위원회** - 유치원교사나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조건은 과도한 예비교사양성에 있다. 따라서 교사양성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다.
- 5) **기타 토론** - 공보육의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에게도 국공립시설과 동일한 처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보육교사 처우수준이 전반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보육사업안내의 처우관련 기준과 급여기준이 전체적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육을 시장논리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관리감독과 지원을 해야 한다.

한국보육교사회는 이번 연구결과와 토론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후 보육교사의 권익증진과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요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보육교사의 처우문제는 보육교사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는 문제임과 동시에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어떤 문제도 저절로 해결되지 않으며 문제 당사자들의 해결을 위한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명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오감을 통한 미술활동 “나무 그림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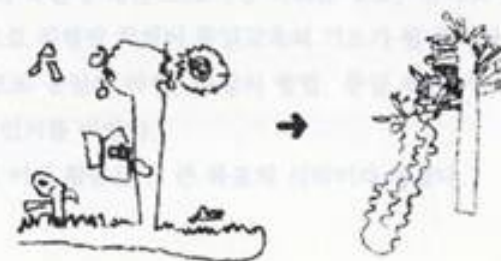
모아래 어린이집의 “나무의 느낌을 그려요”

활동명	나무의 느낌을 나타내요.
활동 연령	7세(12명씩 두 그룹으로 진행)
활동 선정 이유	고정된 나무를 그리는 아이들의 모습이 안타까웠다.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끼는 나무를 아이들과 그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활동하게 되었다.
활동 내용	- 반으로 접은 도화지 한 쪽에 나무를 그려보게 한다. (교실에서 진행하며 크레파스 등 도구는 스스로 결정한다.) - 아이들과 밖으로 나가 마음에 드는 나무를 한 그루씩 고르게 하고 안아보고 손으로 쓰다듬어 보게 한다. - 느낌을 이야기 나누고, 그 느낌을 연필로 부드러웠던 것은 부드럽게, 거칠게 느꼈던 것은 거칠게 그리게 한다. - 머칠 후 아이들과 그림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나누고 나무를 다른 모양으로 표현해 보게 하고, 그 때의 느낌을 색으로 나타내 보게 했다.
활동 평가	- 느낌을 표현하는 수업이 이전에 했던 경험이 있던 아이들어서 큰 거부감 없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 연필이 부드럽거나 거칠게 느꼈던 것을 표현하기에 적합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연필로만 한정해서 그렸는데, 목탄 등 다른 재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 추상적인 도형으로 나무를 표현했던 수업을 아이들이 이해가 어려워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수업 전에 추상화를 보여주고 그림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 나눠 보는 수업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 정형화된 나무를 느낌 없이 그렸던 아이들에게 나무를 느껴보는 수업은 아이들의 고정관념을 조금이나마 깨트려 주는 데 도움이 되었다.

평동 어린이집의 “나무 그리기”

아래의 글은 평동어린이집에서 제작한 오감미술활동자료집 “느껴지니? 그럼, 그려봐!”에 소개된 활동입니다.

활동명	나무 그리기
재 료	재료: 8절 도화지, 크레파스, 16절 도화지, 4B연필, 목탄, 숲
활동 방법	- 아무런 설명 없이 나무를 그리게 한다. (크레파스 사용) - 어린이집 마당으로 나가서 나무를 만져보고 냄새 맡고 이야기를 나눈다. - 만져본 나무를 그린다.
활동 과정	- 교실에서 나무를 그리게 하였을 때 아이들 대부분은 일반적인 개념의 색으로 나무를 그린다. (기둥은 밤색, 나뭇잎은 초록색) - 마당으로 나가 자신이 원하는 나무를 만져보고 냄새 맡아 보고 두들겨 본다. - 아직 잎이나 꺾이 나오지 않았지만 열심히 만져본다. (목련, 은행나무, 사철나무, 향나무) - 한 그루의 나무만 만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모든 나무를 만져보고 그리는데 숲, 목탄, 4B연필로 원하는 장소에서 그리는데 어느 아이는 아주 꼼꼼하게 교실에서 그린 그림과는 다르게 그리고 있다. 또 나무 앞에서 직접 그림을 그리기도 한다. 어느 아이는 나무 한 번 만져보고 그림 한 번 그리기를 반복하기도 한다.
마 주 이야기	목련나무를 만져보고 있는데 채빈: (나무를 만지면서) 예쁘다! 예쁘다! 승연: 냄새가 나요. 교사: 무슨 냄새? 승연: 고양이 냄새요.



통일교육" 우리는 함께 사는 친구들

아래의 글은 2001년 서울시여성기금을 지원 받아 실시한 인터넷활용 현장사례공모전
"인터넷에서 놀자"에 최우수작으로 당선된 작품입니다.
이 외에도 어려운 현장 여건 속에서 공모에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이후 당선작은
우리네 아이들을 통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씩씩이 어린이집 큰외반 아이들의 활동한 것을 담은 프로그램입니다.

참여아동 : 이종현(6세, 남), 노슬찬(6세, 남)
김성윤(6세, 남), 전수정(6세, 여)
박태일(6세, 남), 김혁주(6세, 남)
김정후(5세, 여), 이희수(5세, 남)
임채석(5세, 남), 조진성(5세, 남)
이예지(8세, 여), 노슬미(8세, 여)

지도교사 : 김수연(기획 및 프로그램진행)
김미나(문서작업 및 교구제작)
박인해(사진 촬영 및 조언)

함께 아신 분 :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해주신 '통일세상'의 남택진 이모와 동영상으로 올려주신 김성윤 아빠 김정수님과 여러 가지 조언으로 신경 써주신 김성윤 엄마 여용옥님께 감사드립니다.

활동의 목적

지난해 6.15 남북 정상 회담을 계기로 북쪽 사회에 관심이 고조되었고, 씩씩이 아이들도 TV를 통해 회담장면을 함께 보며 관심이 고조되었다. 교사들은 그 동안 씩씩이에서 일회적으로 진행한 통일교육 활동을 반성하며, 어느 때보다도 고조된 아이들의 관심을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녹여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자료 부족으로 일회적 활동으로 끝나고, 교사의 지식에 의존하는 이야기 나누기로 활동이 국한되면서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심화된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때부터 씩씩이 교사들은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통일"의 주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활동을 생활 안에서 녹여낼 수 있을 까를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통일"을 주제로 8개월 동안 정기적인 교사 토론회를 마련해 통일교육의 방향을 잡았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생활 활동을 준비하게 되었다. 마침 보육교사사회를 통해 인터넷 활용 교육 길라잡이 자료를 얻을 수 있었고, 북한 관련 자료 부족이라는 한계를 가졌던 활동들이 인터넷을 활용함으로써 풍부해질 수 있었다.

이번에 진행된 활동들은 그 동안 씩씩이 교사들이 논의해온 "아이들과 함께 하는 통일" 논의의 첫 번째 실천활동이다.

아이들이 생활하면서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얻은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북쪽 친구들의 존재와 생활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데 활동 목적을 두었다.

특정한 이념과 사상이 도입되지 않은 객관적인 자료, 특히 풍부한 인터넷 정보를 통해 남한의 북쪽에 북쪽 친구들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아이들 스스로가 그 친구들과 만나고 싶은 바램과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 이 활동의 목표이다.

활동 방향을 보면 첫째 날 활동을 통해 우리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 있음을 알고, 그 동안 만나지 못한 북쪽 친구들과 매체를 통해 인사하며 관계 맺기를 시작한다.

둘째 날 활동을 통해 남쪽, 북쪽 생활의 같은 점을 알아가며 일체감을 느낄 수 있고, 셋째 날은 남쪽, 북쪽 생활의 다른 부분을 알고, 다른 부분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활동으로 진행한다. 마지막 날은 북쪽 친구들과 만나고 싶은 마음을 확인하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 활동들을 통해 북한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를 갖고, 만나고 싶다는 바램을 모을 수 있다. 이 활동은 앞으로 진행될 씩씩이 통일교육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이 활동을 시작으로 통일의 바램, 통일의 방법, 통일 후의 세상 등을 아이들이 직접 생각하고 이루어 낼 수 있기를 바란다.

씩씩이 아이들의 이번 활동은 그 큰 목표의 시작이라 하겠다.

"안녕, 반갑다! 북쪽 친구들이
우리는 씩씩이 친구들이란다"

(1) 이야기나누기 - "우리 나라에 함께 사는 북쪽 친구와
남쪽 친구"

>> 우리 나라 지도를 보며 이야기 나누기 - 인터넷 사이트에
서 백두대간 지도, 호랑이 그림 지도 아이들과 함께 찾아
관찰하며 이야기를 나눈다.

(백두대간, -http://user.chollian.net/~jugongmt/32.htm)



교사: 이게 뭐야?

아이들: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지도예요.

맞아, 이젠 백두대간 우리나라 지도야, 우리나라가 무슨 모양으로 생겼나 보자.

(호랑이 그림 지도 사이트를 보며) 자 이 지도는 뭐처럼 생겼나?

호랑이네! 호랑이가 일어서요.

그래, 이 지도와 이 지도를 이렇게 맞춰보면, 똑같네.

이모! 백두산이 있어요.

그래 백두산이 이 위에 있네, 백두산은 남쪽에 있니, 북쪽에 있니?

북쪽이요! 백두할아버지가 사는 곳이에요! 백두할아버지는 잘 계실까요?

그래 이 북쪽에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은 이곳인데, 그럼 여기 북쪽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미국!

어떤 친구가 살고 있다고?

-중국! 아니... 외국

-아니예요 북한 친구들이요!

그래 이 위에는 북쪽 친구들이 살고 있고, 이 아래에는 우리 남쪽 친구들이 살고 있지.

백두산에 살고 있는 북쪽 친구들과 만나 본 적이 있는 사람?

갈라져 있어서 못 가요.

여기 북쪽과 남쪽이다 우리 나라인데 갈라져 있어서 만나질 못해.

-왜 갈라졌어요?

-옛날에 싸워서 그렇잖아.

옛날에 북쪽 사람들과 남쪽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 때문에 싸우게 되었어, 그래서
지금은 50년 동안 서로 다니지 못하게 되었데, 백두산을 가고 싶어도 이렇게 중국 나라
로 비행기타고 돌아서 가야해, 또 북쪽 친구들도 한라산에 가고 싶어도 이렇게 올 수
없어, 이리로 오면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올 수 있는데 지금은 오지 못해.

이모, 백두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백두 할아버지 사는 데로 가고 싶어요.

이모도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네, 그 대신에 북쪽 친구들이 살고 있는 곳을 사진으로
볼 수는 있어.

>> 평양거리 사진

(김녕만의 평양사진 -

http://photo21.pe.kr/pyung/py01.htm)

사이트의 사진 자료를 찾아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는 남쪽의 서울에 살고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뭐가 있을까?

-자동차

-남산타워

-지하철

-기차

-한강대교

-63빌딩

그럼 북쪽에 평양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엔 뭐가 있을까? 지금부터 컴퓨터에 나오니까 잘 보자.

와-

뭐가 있니?

아파트요 기차도 있어요.

응. 그건 버스처럼 다니는 기차같이 생긴 전동차야!

이건 쓰레기통이에요?

그건 의자 같은데... 의자 위에 뭐가 있니?

비올 때 전동차 기다리는 데예요.

그런가 보네. 여기 이름이 평양의 승리거리라네.

다음 사진을 볼까? (사진클릭) 여긴 북쪽의 배만드는 담포라는 곳이다.

- 이모, 탑도 있어요 포크레인도 있어요 와- 진짜 멋있다.

- 이모, 다른 데는요?

그래, 여기도 보자 (사진클릭)

- 이모, 경찰 아줌마예요.

여긴 평양인민문화궁전이란 곳이네. 경찰 아줌마가 뭘 들고 있니?

- 막대기. 빨강, 하양 막대기요. 팔에 "주차"라고 써있어요.

- 아니야! 경찰이라고 써있어. 와- 트럭이다.

그래, 일터에 일하러 가는 아저씨들이 트럭에 많이 타고 있네. 여기는 아까 본 인민문화궁전 안이야.

아줌마가 한복 입고 있어요.

그래 북쪽에 살고 있는 아줌마는 한복을 많이 입나봐. 다른 사진도 볼까... (사진클릭) 여기는 천리마 사거리네.

와- 아파트다.

(사진클릭) 여기는 강북거리고.

와- 군인이다! 군인!

남쪽에도 경찰하고 군인 아저씨가 있지. 이 아저씨도 백화원이라는 곳을 지키는 아저씨래.

위용! 위용! 하는 것도 있지요-

(사진클릭) 여기는 '주석궁' 이래. 와- 건물이 크다! 이건 뭘까?

자동차, 트럭이요! 군인 아저씨가 타고 다니는 거래요.

(사진클릭) 어! 이건 '경상 화학 빨래집' 이라고 써있네. 화학 빨래집이 뭘까?

세탁요! 옷 이렇게 빨는 거래요. 위에서 옷 뭉 돌리는 거예요.

그래, 세탁소인가보다. 북쪽에서는 세탁소를 '화학 빨래집' 이라고 하나보네. (사진클릭)

와! 너무 예쁘다. 나무로 만든 집!

그래. 이젠 평양에 있는 집이래. 그리고 이젠 높은 다리를 만들려고 쌓아 놓은 것이래.

(사진클릭) 여기 평양에 살고 있는 친구들 사진도 많네.

친구! 안녕! 이모, 형아 같아요.

지금까지 북쪽 평양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보고, 여러 곳도 보았지.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사진도 볼까..

>> 서울거리 사진 (전몽각 사진집 - <http://www.j-mong.pe.kr/seoul/intro.html>) 사이트의 사진 자료를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 여기에 '서울사진' 을 쓰고, 이걸 누르면 ... 서울 사진이 보일 거야.

와- 차도 많고 복잡해요. 어떤 아저씨랑 얘기도 걸어가고 있어요.

(여긴 남현동이래. (사진클릭) 그리고 여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여긴 동대문 시장이네.

와 멋있다. 동-동-동대문을 열이라. 거기죠-

(사진클릭) 와- 형들이 자전거 타고 있어요.

맞아, 여름방학에 형아들이 자전거 타고 있는 사진이네. (사진클릭) 남산 사진도 있네. (사진클릭)

- 와- 이젠 뭘예요?

- 메가패스!

메가패스? 여기서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메가패스 장군이요!

여긴 세종로라는데 메가패스 장군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 동상을 찍은 사진이야.

(사진클릭) 여긴 강남대로인데..

와- 빌딩 차들이 많아요.

그래 여기 남쪽에는 우리 남쪽 친구들이 살고 있고, 북쪽에는 북쪽 친구들이 살고 있네. 북쪽 친구들이 살고 있는 곳과 남쪽 친구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떻게?

멋있고, 서울에 사람이 많아요.

이모가 보니까 북쪽이나 남쪽이나 조금 다른 것도 있지만 사는 곳이 똑같구나.

북쪽에 사는 친구들을 만나고 싶네.

- 이모, 나도 보고 싶어요.

- 나도요.

이모도 북쪽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만나야 할지 생각해봐야겠네.

>> 전시물 게시 - 인터넷 자료를 인쇄해 어린이집 한 벽면에 전시하여 아이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었다.



(2) 통일 백두대간 게임

- 우리 나라 백두대간 지도(백두대간, - <http://user.chollian.net/~jugongmt/32.htm>)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살펴보고, 통일 백두대간 놀이판을 보며 구체적인 산이나 지명을 찾아보았다.
- 놀이판에서 백두산과 금강산의 위치를 확인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백두산 천지와 금강산 풍경 사진을 살펴보았다. (아름다운 산하 - <http://myhome.netsgo.com/ace55/theme1.htm>)
- 통일 백두대간 게임에 대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아 익혔다. (통일백두대간놀이 - <http://www.maul.or.kr/index1.htm>)
- 놀이방에 게임판을 부착하여 일과 중에 자유롭게 소그룹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었다.

(3) 그림편지 나누기

>> 이야기 나누기 - 북쪽 친구들이 그림편지를 보내왔어요

교사: 애들아, 너희 북쪽 친구들이 보고 싶다고 했지? 기쁜 소식이 있어. 북쪽 친구들이 너희들처럼 씩씩이 친구들이 보고 싶다고 편지를 보냈어. 자기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서 "친구들이 보고싶다"라고 편지를 보내왔네.

아이들: 우리도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네! 보고싶어요! 빨리 봐요. 어떻게 생겼는데요?

그래 어디 보자! 인터넷으로 편지를 보내왔는데 같이 보자. 잠깐 기다려봐.

>> 남북어린이끼리 동무(<http://okedongmu.or.kr>)에서 그림편지 사이트를 찾아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와! 바로 이 그림들이 북쪽 친구들이 보낸 그림 편지네!

(그림을 보며) 여기 뭐라고 써있냐하면 "너희와 난 한 핏줄"이라고 쓰여있네.

너희와 난 한 핏줄..

누가 보냈냐하면 '한통선' 친구가 보낸 거야. (그림 클릭) 여기 편지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그라운 동무야 우리 궁전은 전설에 나오는 하늘나라 왕궁 같아. 통일이 되면 꼭 한번 놀러와줘"라고 써있어. 재네들도 씩씩이에 놀러 왔으면 좋겠다.

우리도 놀러 갈 수 있고, 북쪽 친구들도 놀러왔으면 좋겠구나. 이걸 남쪽 친구들에게 주는 선물! 김용민 친구가 보내온 거네.

얼굴이 빨개졌어요. 몇 살이에요?

8살 정도 된 것 같은데... 다음 편지는.. 어? 북쪽 친구와 남쪽 친구가 손을 잡고 있네. 뭐하고 있는 걸까?

신나게 놀고 있어요. 뭐라고 써있어요?

"하루 빨리 만나고 싶어. 친구들아"라고 써있네.

(그림 편지를 차례로 클릭하여 읽어본다.)

자, 다 보았네. 북쪽 친구들 편지를 보니 어땠니?

참 고마워요. 우리도 편지 보내고 싶어요.

어떻게 편지를 보낼까?

우리도 그림 그려서 컴퓨터에 보내요.

그럼 어떤 그림을 그려서 보낼 건데?

- 북쪽 친구들과 축구하고 싶어요. 그걸 그릴 거예요.

- 난 악수하고 싶어요.

- 난 소꿉놀이하고 싶어요.

좋아. 그러면 너희들이 북쪽 친구들이 생각 날 때마다 편지를 써서 모으면 이모가 여기 인터넷에 넣어주는 이모 삼촌에게 보낼게. 여기에 올리면 북쪽 친구들도 우리처럼 인터넷을 보고 편지를 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편지를 어떻게 모으지?

상자에 담아 뒀요.

아! 편지상자를 만들어 넣어두면 되겠구나. 좋은 생각이네. 편지상자를 만들어서 북쪽 친구들에게 편지 쓰고 싶을 때 그려서 넣어두자.

좋아요!

>> 그림편지 그리기. 우편함 만들기

- 북쪽 친구들에게 전할 편지 내용을 생각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종이에 내용에 맞는 그림을 그렸다.
- 함께 상자를 꾸며 '북쪽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함'이라고 써넣은 후, 교구장 한쪽 면에 아이들 키 높이에 맞추어 달아두었다.
- 수거된 그림편지를 모아 남북 어린이 어깨동무에 보내 그림을 인터넷에 올릴 수 있게 한다.
- 원하는 아이들은 어깨동무 회원이 되어 어깨동무 버튼을 받는다.

>> 그림편지 전시 - 북쪽 친구들이 보낸 그림편지를 인쇄하여 놀이방 벽면에 게시하고, 아이들이 그린 그림도 벽면에 전시하였다. 활동을 끝내고 아이들은 동생들과 이모들에게 그림을 설명해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4) 영상편지 제작

>> 이야기나누기

교사: 그림을 그려서 편지를 보내는 것 말고 북쪽 친구들에게 또 어떻게 인사를 전할 수 있을까?

아이들:

잘 생각이 안 나는구나. 이모가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너희들 얼굴하고 말을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서 컴퓨터 인터넷에 올리는 거야. 너희들도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사진을 봤지? 사진 말고도 우리 움직이는 모습과 목소리를 인터넷에 넣을 수 있어.

개네들이 우리 볼 수 있어요?

응. 인터넷은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이 함께 볼 수 있으니까 북쪽 친구들도 인터넷을 보고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와~ 개네도 컴퓨터 있어요?

그럼, 북쪽 친구들도 우릴 볼 수 있을 거야.

>> 영상편지 촬영

- 북쪽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하고 연습해 보았다.

북쪽 친구들아! 편지 보내줘서 고마워. 보고 싶어.

우리가 인터넷으로 해왔으니까 잘 봐.

친구야! 놀러와. 놀러오면 떡볶이 사줄게.

북쪽 친구야! 만나서 같이 축구하자.

- 컴퓨터 관련직에 종사하는 김정수님의 도움으로 아이들의 메시지를 디지털 카메라로 한 명씩 촬영하였다.
- 편집하여 김성운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통일세상'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올렸다. (통일세상: [ftp://skybaduk.com/tongil.wmv](http://skybaduk.com/tongil.wmv)) (용량이 큰 관계로 바둑 사이트에 올림)
- 아이들이 직접 클릭하여 동영상을 찾아보았다. 자기의 모습이 나오는 화면을 보고 신기해하였다.
-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찾아보고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주제에 해당하는 사이트를 소개한 통신문을 가정에 보내어 가족들이 함께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통일 교육'을 가족으로 확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활동이었다.

“너희들도 우리와 똑같니?”

(1) 이야기 나누기 - “북쪽의 평양에는 무엇이 있을까?”

- 북쪽 친구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무엇이 있는 지 궁금한 것을 이야기했다. 다리, 자동차, 찻길, 집, 전기, 영화관, 아파트, 컴퓨터, 야구장, 축구장, 놀이공원, 학교, 식당, 사람, 바다, 산, 나무, 전철, 가방, 텔레비전, 신호등, 시장, 주유소, 목욕탕, 신문, 화장실, 제과점, 신문 배달하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해하였다.
- 전날 본 평양 사진 (김녕만의 평양사진 - <http://photo21.pe.kr/pyung/py01.htm>)을 다시 찾아 평양 거리와 생활 모습을 관찰하였다.
- 통일 꿈나무 사이트(<http://www.uniedu.go.kr/kids/index.html>)에서 북쪽 아이들의 생활에 대한 자료를 찾았다. 전날 본 평양 사진을 다시 클릭하여 자료에서 소개된 생활 모습을 사진에서 찾아보았다. 이 중 밑줄 친 것은 평양 사진자료와 여러 사이트에 나온 설명을 듣고 평양에 존재함을 알아냈으나 다른 것은 찾지 못하였다. 사진을 보며 북쪽 사람들도 남쪽과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북쪽 친구들아, 궁금한 게 있어”

북쪽 아이들이 TV를 보는지, 밥은 언제 먹고, 출석은 부르는지, 어떻게 혼나는지, 가방을 갖고 다니는지, 교회에 다니는지, 장난감은 언제 가지고 놀고, 컴퓨터게임을 하는지, 선풍기가 있는지, 화장실은 언제 가는지, 집은 어디인지?가 궁금하다고 말하였다.

통일교실 사이트(NK조선일보 - <http://nk.chosun.com/board/list.php3?table=teacher>)를 함께 보며 ‘TV를 가지고 있는 집이 얼마 되진 않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만화도 들어준다, 북한선생님은 회 초리를 들고 다니시는데 이를 ‘지시봉’이라 한다, 남한 선생님보다 무섭다고 한다,

평양에도 교회가 있어서 다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을 통해 북쪽 아이들의 생활도 남쪽 아이들의 생활과 비슷함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

교사는 북쪽 친구들도 남쪽 친구들처럼 북쪽 친구들이 비슷한 노래를 즐겨 부르고, 동화를 듣고, 놀이도 한다고 소개하고, 어떤 노래와 동화, 놀이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약속했다.

(2) 동화듣기

교사가 통일책방(남북어린이어깨동무 - <http://okedongmu.or.kr>)에 소개된 북쪽의 동화 “생물치녀와 향나무 총각” “돌배개”를 인쇄하여 낮잠 시간에 구연동화로 들려주었다.

(3) 놀이

- 아이들과 함께 남북어린이 어깨동무 (<http://okedongmu.or.kr>)에서 북쪽 친구들이 즐겨하는 놀이를 찾았다.
- 이 놀이 중 아이들이 가장 해보고 싶은 놀이를 선택하였다.
- 교사가 아이들이 선택한 놀이 ‘하늘발 망치기, 망줄기 놀이를 놀이방에 그려 넣고, 놀이 방법을 소개했다.
- 남쪽의 망치기 놀이와 비슷해 아이들이 쉽게 익힐 수 있었다.
- 놀이 방법을 익힌 후 일과 중에 자유롭게 소모임을 구성해 놀 수 있었다.

〈하늘발 망치기와 망줄기 놀이 방법 - 인터넷 사이트 자료 참조〉

(4) 음률

- 하나되는 그날 사이트(<http://union.woorizip.com>)에 소개되어 있는 북쪽 친구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중 ‘내 사랑 뽀뽀 반갑습니다’를 찾아 노래를 들어보고 함께 불러 보았다.

- 남쪽 대중 매체에서 많이 소개되어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부르는 아이들이 있어 쉽게 익힐 수 있었다.

(5) 영상 메시지 제작

- 평소 씩씩이 아이들이 알고 있는 남쪽의 노래 ‘백두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노래에 맞춰 율동 하는 모습을 ‘통일세상 (관악지역의 통일 모임)의 남택진씨의 도움으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했다.
- 큰외반 아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배운 북쪽노래 ‘내 사랑 뽀뽀 반갑습니다’를 부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 북쪽 아이들, 부모님, 남쪽의 다른 사람들이 동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통일 세상 홈페이지 (<ftp://skybaduk.com/tongil.wmv>)에 올렸다.
- 추후 아이들이 직접 동영상을 찾아보았다.

“그럼 우리들이랑 다른 건 뭐니?”

(1) 이야기나누기 - “북쪽 친구들과 남쪽 친구들이 조금 달라요!”

남쪽 사람들과 북쪽 사람들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해 서로 달라진 것이 있음을 이야기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 묻자 아이들이 대답하지 못했다. 교사는 여러 가지 달라진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쓰는 말이 많이 다름을 이야기해주고, 어떤 말이 달라졌는지 게임으로 알아 맞추자고 제안하였다.

(2) 퀴즈게임 - 북쪽말, 남쪽말 알아 맞추기 게임

- 교사는 미리 남북한 언어비교 사이트와 남북한 말의 차이와 생활 사이트 (NK조선일보 -

<http://nk.chosun.com/unification/northword/northword.html>)에서 서로 다른 남쪽말과 북쪽말 자료를 찾아 두었다.

- 큰외반의 예지가 그린 남쪽, 북쪽 아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을 그림판으로 만들어 게임판을 제작하였다.
- 그림판에 숫자종이를 붙이고, 실물 자료를 배치했다.
- 교사가 북쪽 말을 이야기하고, 남쪽에서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을 실물로 찾았다.

남쪽 말 - 북쪽 말		
어묵	-	고기떡
우유과자	-	예기과자
쥬스	-	과일단물
계란말이	-	색쌈
비스켓	-	기름과자
도너츠	-	가락지빵
라면	-	꼬부랑 국수
아이스크림	-	얼음 보숭이
팬티	-	팬츠

- 답을 맞추면 숫자 종이를 하나씩 떼어내어 모두 맞으면 통일 그림이 나오도록 했다.
- 실물 자료를 사용하니 아이들은 모르는 북쪽 말도 쉽게 연상할 수 있었다.
- 게임 이외의 시간에도 아이들은 게임에서 알았던 것들이 나오면 북쪽 말로 부르는 것을 재미있어 하였다. 간식시간에 쥬스가 나오자 "과일 단물이야, 과일단물" 하면서 새로운 용어로 이름 부르는 것을 즐거워했다.

(3) 동시

- 남쪽 말에도 지역마다 다른 사투리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다른 지 알아보기로 했다.
- 교사가 미리 사투리 천지 (<http://olive.co.kr/>) 사이트에서 범에 대한 팔도 사투리 자료를 찾아 소개했다.
- 동시 "우리는 하나"를 소개하고 각 지방의 인사에 대한 사투리를 소개한다.

(동시 자료- 인터넷 사이트 자료집 참조)

- 팔도 인사말을 함께 이야기해보고 느낌을 이야기해보았다. 아이들은 "안녕"은 똑같은데 뒤에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사투리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 사는 곳에 따라 말이 조금씩 다르게 쓰이는 것을 이해하였다.
- 서로 만나지 못한 북쪽 사람들의 말이, 서로 만날 수 있는 남쪽의 다른 지방의 말보다 많이 달라졌음을 이야기했다.

(4) 미디어 감상

- 아이들과 함께 NK조선일보(<http://nk.chosun.com/unification/cartoon/cartoon.html>)에서 북쪽 아이들이 즐겨보는 만화 자료를 찾았다.
 - 게시되어 있는 애니메이션 중에서 아이들이 보고싶은 작품을 한가지 고르도록 하였다.
 - "령리한 너구리"를 골라 사이트를 열고 동영상 함께 감상했다.
 - 아이들이 "령리한"이 무슨 말인지 궁금해하고, 화면속 대사의 어투가 남쪽 말과 다른 것을 신기해 했다.
 - 동영상을 감상한 후 만화의 줄거리와 느낌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다. '재미있었다.' '그림이 예쁘다' '말이 이상하다' '동생들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반응이 있었다.
 - 종현이가 동생들에게도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그림책으로 만들어 보여주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모두 그림책 작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억나는 장면을 한 장면씩 정하여 그림으로 표현하여 그림책을 만들었다.
 - 그림 설명을 첨가하여 그림책꽂이에 넣어두고 자유롭게 읽을 수 있게 하였다.
 - 큰외반 아이들이 직접 동생들에게 그림책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였다.
- 동생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북쪽 친구들이 보는 만화라는 설명도 함께 해주기도 하였다.



“북쪽 친구들아- 빨리 만나고 싶다!”

〈종결행사〉

(1) 이야기나누기 - 북쪽 친구들을 만나면 무엇을 할까?

교사: 그동안 우리나라 북쪽에 살고있는 친구들에 대해 많이 보았는데 어떤 것이 있었는지 기억나니?

아이들: 백두산 지도요.

- 친구들이 보는 만화요, '령리한 너구리' 요

- 친구들 편지요, 축구하자고 했어요.

- 큰 다리 사진도 있었어요, 멋있었어요.

그래, 북쪽 친구들에 대해 사진도 보고, 만화도 보고했는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니?

- 북쪽 친구들이 보고 싶어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 만나서 축구도 하고 소꿉놀이도 하고 백두 할아버지도 만나고 싶어요.

술찬이는 북쪽친구들을 만나면 하고 싶은 게 많구나.

김밥가지고 소풍가서 같이 먹을 거예요.

그래, 그래... 우리가 북쪽 친구들에게 그림편지도 보내고, 인터넷으로 얼굴하고 이야기도 전했으니 까 친구들이 볼 거야. 우리가 자주 북쪽 친구들에게 소식을 보내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처럼 친구들도 우리가 보고 싶을 거야.

우리도 보고 싶어요, 언제 북쪽 친구들이 와요?

이모는 남쪽 사람들하고 북쪽 사람들하고 옛날에 싸운 것을 화해하고 서로 같이 살자고 약속하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북쪽 친구들 만나면 꼭꼭이 친구들은 무엇을 할거니?

- 놀이 공원에 데리고 가서 놀 거예요.

- 동물원에 갈 거예요.

- 우리 집에 초대할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야기 한 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적어두자. 나중에 북쪽 친구들이 오면 제일 하고 싶은 것을 적어서 붙여보는 건 어떨까?

좋아요, 우리 집에 초대해서 얼음 보송이 줄 거예요.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구나. 참, 이모가 인터넷으로 북쪽 친구들 소식을 들으니 북쪽 친구들이 먹는



음식이나와 있었어. 그 중에서 하나 골라 우리가 직접 요리해보는 건 어떨까?

와-

무슨 요리인지 알려줄게. 남새밥이라는 건데.. 남새는 북쪽에서 쓰는 말이구 남쪽에는 '야채' 레. 지금부터 북쪽 친구들이 오면 하고 싶은 것을 적어놓고, 남새밥도 만들어 보자.

이모- 밥 만들어서 동생들도 초대하고 주스도 먹고해요.

좋은 생각이네. 요리를 해서 간식시간에 동생들도 초대하고 이모들도 초대해서 잔치를 해보자. 그러면 북쪽 친구들이 우리 잔치하는 것 볼 수 있게 사진 찍어서 보내줄까?

좋아요-

(2) 북쪽 친구들을 만나서 하고 싶은 것 스크랩하기

- 북쪽 친구들을 만나면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한다.

놀이공원 가기/ 혁주, 술찬, 수정, 태일, 정후

우리 집에 초대하기/ 성운, 채석

동물원에 가기/ 진성

백화점에 가기/ 술찬

남산에 가기/ 종현

- 인터넷으로 놀이공원, 동물원, 집, 백화점, 남산 사이트를 함께 찾았다.

- 사이트에서 해당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다운 받아 프린트해서 종류별로 스크랩을 했다.

- 놀이방 벽면에 전시하였다. 아이들이 스크랩을 보며 다른 반 이모들에게 북쪽 친구들에 대해 설명 하곤 하였다.

(3) 플랭카드 제작

- 북쪽 친구들에게 제일 전하고 싶은 말을 의논하여 '북쪽 친구들아 보고싶다' 로 정하였다.

- 4절 크기 도화지 10장에 정한 문구의 글자를 한 자씩 적어 플랭카드를 만들었다.

(4) 잔치

- 남새밥을 만들어 상에 차려놓고 동생들과 이모들을 초대하여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 잔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놀이방에 달아두었던 '북쪽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함' 에 넣어두었다.

- 미리 제작한 '북쪽 친구들아 보고싶다' 플랭카드를 모두 들고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사진촬영을 하였다. 촬영한 사진도 우편함에 넣어 북쪽 친구들에게 보내도록 하였다.

(5) 남새밥 만들기

요리명	남새밥
일시	2001년 12월 13일 목요일
활동목표	북한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북한을 좀 더 친근하게 여기도록 한다. 남새가 북한말로 야채나 채소를 나타낸다는 것을 안다.
준비재료 및 기구	재료: 쌀, 표고버섯, 당근, 죽순, 완두콩, 참기름, 소금, 간장 기구: 휴대용 가스렌지, 냄비, 도마, 빵칼, 바가지, 개인접시
참석아동	종현, 슬란, 태일, 성운, 혁주, 회수, 정후, 채석, 진성
사전활동	인터넷으로 북한 음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북한음식을 찾아보고 우리가 만들 남새밥도 찾아본다. 직접 재료를 사고, 재료를 다듬어 놓는다.
요리순서	인터넷검색·남새밥 만드는 법 프린트·재료사가·재료셋가·다듬기·씻기·밥짓기
요리과정	① 표고버섯은 흠을 털어 낸 다음 물에 불렸다가 가등을 때어내고 채썬다. ② 당근과 죽순은 손질하여 먹기 좋은 크기로 어슷썰기를 한다. ③ 뜨겁게 달군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당근, 죽순, 표고버섯, 완두콩을 넣고 볶는다. ④ 반쯤 익었을 때 쌀을 넣고 볶다가 간장으로 색을 내고 소금을 넣어 간을 한 다음 더운물을 적당하게 부어서 밥을 짓는다. ⑤ 밥을 지을 때 처음에는 중간 불에서 끓이다가 물이 잦아들면 약한 불에 놓고 뜸을 들인다. ⑥ 적당하게 뜸이 든 밥을 고슬고슬하게 퍼서 그릇에 담는다.
주의점	불을 사용하므로 조리과정에 자리를 뜨면 안 된다. 물을 대충하기가 어려우므로 1컵씩 부어야하고 뜸을 잘 들여야 한다.
사후활동	미술 준비물·A4용지, 싸인펜 ·요리과정 그림으로 그리기 (인터넷 검색·재료사가·다듬기·씻기·요리·시식·설거지)
평가	죽순과 완두콩은 통조림으로 준비했다. 표고버섯을 자를 때 태일이 냄비가 난다며 못 썰었다. 냄비에 당근, 죽순, 완두콩, 표고버섯을 넣고 워-하는 탄성소리가 났다. 알록달록 예쁜 색이었다. 양을 많이 했더니 야채를 볶을 때 뒤적거리기가 힘들어했다. 빵칼로 자르게 했으나 손을 다쳤다고 호소하는 아이가 많았다. 요리가 단순해서 교사가 아이들을 볼 여유가 있었다. 예상시간 보다 오래 걸렸다.

(6) 종이 비행기 날리기 (종결행사)

- 북쪽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후 종이 비행기를 접어 날렸다.

우편함에 편지를 넣던 종현이가

"이모, 우리가 쓴 편지요. 북쪽친구가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전해줘야지. 빨리 볼 수 있을까?"

"음 비행기 타고 가요. 백두할아버지구를 타고 가요."

"그런데 지금은 북쪽까지 직접 가는 비행기는 없단다. 또, 비행기를 탄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를 지나서 가야하기 때문에 멀리 가야 한단다. 이모 생각으로는 종이비행기로 가면 어떨까 싶은데..."

"좋아요. 우리가 쓴 편지를 종이비행기 접어서 날려보내요."

"어디에 가서 날리면 평양까지 갈 수 있을까?"

"우리 집 옥상이요."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씩씩이에도 옥상이 있으니깐. 씩씩이에서 제일 높은 옥상에 가서 종이비행기를 날려보내자."

종이애다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종이비행기를 접어 옥상으로 올라갔다.

"이모 추워요", "이모 빨리 날려보내요"

"그래, 그런데 우리 뭐라고 하면서 비행기 날려보낼까?"

"북쪽 친구들이 사랑해 이렇게 해요"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북쪽 친구들이 사랑해하고 날리는 거다"

"하나, 두울, 세엿"

"북·쪽·친·구·들·아·사·랑·해" 슈욱-

"이모 종이비행기가 날아가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마도 바람이 숭-숭- 불어서 평양 친구가 있는데 까지 꼭 날려보내 줄 꺼야."



(7) 부모 연계 활동

- 부모회에서 통일교육에 대해 홍보하고 영상 편지와 메시지를 아이들과 함께 찾아본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백두산' 율동을 하는 것을 보고 부모들이 이 노래에 관심을 나타냈고 배워서 아이들과 함께 부를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부모회에서 의논하여 '백두산' 율동 팀을 꾸려 송년잔치에 부모 공연을 하기로 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절기와 세시풍속

어느 절인가 우리들, 우리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발렌타인데이 등의 서양 명절을 생기게 되고, 생일 풍속을 봐도 케익 촛불이 익숙합니다. 왜 케익을 먹는지 초를 왜 켜는지 정확히 모르고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생일 풍속이 있습니다. 지금은 첫 돌 때만 근사하게 챙겨 주지만, 10살 때까지 백설기와 수수팥떡을 해주면 아이가 잔병치레하지 않고 오래 산다고 합니다. 이렇게 음식 하나하나 해먹는 의미가 있는데, 구태의연하고 귀찮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의 좋은 풍속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때 맞추어서 음식을 해먹는 것도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보름에 오곡밥과 나물을 먹는 의미, 복날 땀흘리며 개장국을 먹는 의미, 동짓날 팔죽 먹고, 겨울에 김장 담그고 하는 것이 지금은 음식이 흔하고, 농경 사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조상들이 오래도록 해왔던 하나의 전통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경 사회에서 발달한 전통 문화들을 모두 다 경험해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세시 풍속과 절기를 지금의 국경일과 비교해서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동국세시기, 일양세시기를 기초로 정리한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도 '세시풍속'만 쳐도 많은 자료들이 검색되니 그것도 참고하세요.

새 학기 계획 세우실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입춘(立春)

양력 2월 4일경.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로 봄으로 접어드는 것을 알리요. 음력으로는 대개 정월 때라 새해를 상징하지요. 그래서 옛어른들은 이 날 '입춘대길'과 같은 좋은 뜻의 글을 써서 대문 기둥이나 대들보, 천장에 붙였고 농가에서는 보리 뿌리를 뽑아 보고서 그 해 농사가 잘 될지 잘못될지 점을 치기도 했어요.

우수(雨水)

양력 2월 19일경. 날씨가 많이 풀려 봄기운이 돈고 초목이 싹트게 되는 절기로 예로부터 "우수, 경칩에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말이 있어요.

경칩(驚蟄)

양력 3월 6일경. 경칩은 땅속에 들어가 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나서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이 무렵에는 개구리들이 나와 물이 편 곳에 알을 낳는데 그 알을 먹으면 허리 아픈 데 좋다고 해서, 경칩날에 개구리알을 먹는 풍습이 전해오고 있지요.

춘분(春分)

양력 3월 21일경. 겨울에 짧았던 낮이 길어져서 밤낮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날이에요. 음력으로는 2월인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2월 바람에 김치독 깨진다.", "꽃샘에 설늬은이 얼어 죽는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예요. '꽃샘 추위'는 바람신이 꽃이 피는 걸 생낸다 해서 붙은 이름이지요.

청명(淸明)

양력 4월 5일경. 한식의 하루 전날이거나 한식과 같은 날이 되지요. 또 오늘날의 식목일과도 대개 겹쳐요.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논농사 준비 작업으로 논밭둑 가래질을 시작하지요.

곡우(穀雨)

양력 4월 20일경. 봄비가 잘 내리고 온갖 곡식이 윤택해지는 때예요. 그래서 "곡우에 가물면 땅이 석자가 마른다." 즉 그 해 농사를 망친다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 무렵에 못자리에 쓸 뽕씨를 담갔는데, 밖에서 부정한 일을 당하거나 본 사람은 집 앞에 와서 불을 놓아 나쁜 귀신을 몰아낸 다음에 집안에 들어오고 들어와서도 뽕씨를 보지 않을 정도로 소중히 여겼대요.

입하(立夏)

양력 5월 6일경. 여름이 다가온 것을 알리는 절기예요. 곡우 무렵에 마련한 못자리가 자리를 잡아 농사일이 더욱 바빠지는 때예요. 농작물도 잘 자라지만 해충이 많아지고 잡초까지 자라서 이것들을 없애는 일도 많아지지요.

소만(小滿)

양력 5월 21일경. 여름 기분이 나기 시작하면서 식물이 성장하는 때예요. 농가에서는 모내기 준비, 가을 보리 먼저 베기, 여러 가지 밭농사의 김매기들이 줄을 이어 제일 바쁜 계절로 접어들었어요. 지금은 농사 기술이 발달해서 이 때쯤 모내기가 시작돼요. 봄철 입맛을 돋우는 냉이국은 이 때 즐겨 먹는 음식으로 유명하지요.

망종(芒種)

양력 6월 6일경. 망종은 벼, 보리 등 수염이 있는 곡식의 씨앗을 뿌리기에 적당한 때라는 뜻으로 “보리는 익어서 먹게 되고, 벼모는 자라서 심게 되니 망종이요.”, “햇보리를 먹게 될 수 있다는 망종.”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모내기와 보리베기가 겹쳐서 1년 중 제일 바쁜 때였기 때문에 특히 보리 농사가 많았던 남쪽 농촌에는 “밭등에 오줌싼다.”는 말이 전해 오지요.

하지(夏至)

양력 6월 21일경. 일년 중 낮이 가장 긴 절기예요. 옛어른들은 모내기를 모두 끝내고 이 때 까지도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냈어요. 예를 들어 충청북도 단양군의 한 마을은 제물로 개나 돼지, 소를 잡아 그 머리만 용소(폭포수가 떨어지는 바로 밑에 있는 웅덩이)에 넣어요. 그러면 용신이 그 부정함에 노해 비를 내려 씻어 버린대요.

소서(小暑)

양력 7월 7일경. 소서는 작은 더위라는 뜻으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때예요. 그래서 온갖 과일과 채소가 풍성해지고 밀과 보리도 먹게 되지요. 특히 단호를 전후해서 즐기는 밀가루 음식은 이 때가 가장 맛이 난다고 해요.

대서(大暑)

양력 7월 23일경. 대서는 큰 더위라는 뜻으로 몹시 덥고 큰 장마가 지는 경우가 많은 절기예요. 소서와 대서 무렵에는 논밭의 잡초를 뽑고 풀, 짚 등을 섞어 거름을 만들어 두었어요. 이 때가 과일 맛이 가장 좋은데 비가 적게 와야 더욱 제 맛이 난다고 해요.

입추(立秋)

양력 8월 8일경.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다는 뜻을 가진 절기예요. 따라서 이 때부터는 가을 채비를 시작해야 하는데 특히 무, 배추를 심고 서리가 내리기 전에 거두어서 겨울김장에 대비하게 되지요. 김매기도 끝나고 농촌이 한가해지기 시작해서 “어정 7월, 건들 8월.”이라는 말이 전해져요.

처서(處暑)

양력 8월 23일경. 처서는 여름이 지나 더위가 가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때는 따가운 햇볕이 누그러져서 풀이 더 자라지 않기 때문에 논두렁이나 산소의 풀을 깎고, 낱씨가 선선해져서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고 하지요.

백로(白露)

양력 9월 8일경. 백로는 ‘이슬 로(露)’자를 써서, 밤에 기온이 내려가고 풀잎에 이슬이 맺히는 등 가을 기온이 완전히 나타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된 여름 농사를 다 짓고 추수까지 잠시 일손을 쉬는 때라 여자들은 친정으로 부모님을 뵈러 갔다고 해요.

추분(秋分)

양력 9월 23일경. 하지 이후로 낮이 조금씩 짧아져서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때예요. 추분이 지나면 점차 밤이 길어지므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돼요. 이 무렵에는 논밭의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목화와 고추도 따서 말리는 등 잡다한 가을 일이 많이 있어요.

한로(寒露)

양력 10월 8일경. 한로는 찬 이슬이 맺힌다는 뜻이에요. 기온이 더욱 내려가기 전에 추수를 끝내야 하므로 농촌은 타작이 한창인 때이지요. 대개 중앙절과 비슷한 때로 국화전과 국화술을 즐기고 모임과 놀이가 많았어요.

상강(霜降)

양력 10월 23일경. 상강은 서리가 내린다는 뜻으로, 이 무렵은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밤에는 온도가 매우 낮아져서 서리가 맺히는 늦가을이에요. 옛날 중국 사람들은 상강이 지난 다음 입동이 들기 5일 전에는 벌레들이 겨울잠에 들어간다고 했지요.

입동(立冬)

양력 11월 7일경. 겨울로 접어든다는 뜻을 가진 절기로 입동에 날씨가 따듯하지 않으면 그 해 바람이 독하다고 해요. 더 지나면 배추가 얼어붙고 일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입동을 전후해서 김장을 담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무렵이면 여자들이 냇가에서 무, 배추를 씻는 모습이 장관을 이루었다고 해요.

소설(小雪)

양력 11월 22일경. 소설부터는 살얼음이 잡히고 땅이 얼기 시작해서 점차 겨울 기분이 들어요. 이 무렵인 음력 10월 20일에는 바람이 심하게 불고 날씨가 추워서 외출을 삼가고 특히 뱃길을 조심하지요.

대설(大雪)

양력 12월 7일경. 대설은 눈이 많이 내린다는 뜻을 가진 절기예요. 우리 나라에서는 반드시

시 눈이 많이 오지는 않지만, 이 날 눈이 많이 오면 다음 해 풍년이 들고 푸근한 겨울을 난다고 하지요.

동지(冬至)

양력 12월 22일경. 일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이에요. 동지 다음 날부터는 낮이 다시 길어지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은 이 날을 태양이 죽음으로부터 되살아나는 날이라 생각하고 태양신에게 제사를 올렸다고 해요. 동짓날을 '작은 설'이라 하고 "동지팥죽을 먹어야 진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예요.

소한(小寒)

양력 1월 6일경. 소한은 '작은 추위'라는 뜻이에요. 이름으로 보면 '큰 추위'라는 뜻의 대한 때가 더 추운 것 같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소한 때가 가장 추워서 "대한이 소한 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죽었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예요.

대한(大寒)

양력 1월 21일경. 중국에서는 겨울 추위는 입동에서 시작해서 소한으로 갈수록 추워지고 대한에 이르러서는 최고에 이른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소한 때가 더 추워서 "춥지 않은 소한 없고 포근하지 않은 대한 없다.", "소한의 얼음 대한에 녹는다."는 속담도 있지요.

절기에 따른 세시풍속

월	국경일	절기	세시	세시풍속	시절음식
1	1일 신정	5일 소한 20일 대한	23일 동지		23일 동지
2		4일 입춘 19일 우수	11일 제석(12/30) 12일 설날(1/1) 25일 정월대보름(1/15)	입춘: 붉은 글씨로 입춘대길(立春大吉)이라고 함 제석: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된다. 율놀이 날뛰기 설날: 차례, 세배, 덕담, 문안인사, 율놀이 대보름: 안달리기, 제기차기, 팽떡놀이(달맞이), 다리밟기(달교), 차전놀이, 석전(돌싸움), 줄다리기, 매서(더위팔기)	설날: 떡국 대보름: 오곡밥(찰쌀, 찰수수, 팥, 차조, 콩)과 나물(호박, 가지, 시래기, 콩추 등)
3	1일 삼일절	6일 경칩 21일 춘분			

절기에 따른 세시풍속

월	국경일	절기	세시	세시풍속	시절음식
4	5일 식목일	5일 청명 20일 곡우	6일 한식(2/24) 15일 삼짇날(3/3)	청명: 봄갈이의 시작 한식: 계사(술, 과일, 떡, 국수, 탕, 적), 조상의 묘 손질, 냉질(숙식-불을 금함) 삼짇날: 재비가 돌아오는 날, 꽃놀이, 꽃으로 술 담그기(진달래)	삼짇날: 화전, 오미자차, 수면
5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15일 스승의날	6일 입하 21일 소만	19일 석가 탄신일(4/8)	석가탄신일: 연등 만들기, 불상아름들리기 수부화(물동이에 바가지 얹어놓고 빗자루로 두들기기)	중편, 붉은 검은콩, 삶은 미나리, 어만두
6	6일 현충일	6일 망종 21일 하지	15일 단오(5/5)	단오: 청포탕에 머리감고 새수하기, 그네뛰기, 씨름, 석전(돌싸움), 부채 나누어주기, 장담그기, 대추나무 사질보내기	쑥떡, 익모초 달이기
7		17일 계한절 7월 소서 23일 대서	11일 초복(6/2) 15일 유두(6/6) 21일 중복(6/12)	유두: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감기	삼복: 개장국, 붉은 팔국 유두: 수단, 상화병(밀가루로 콩이나 깨를 싸서 번 것)
8	15일 광복절	8월 입추 23일 처서	10월 말복(7/2) 15일 칠석(7/7) 23일 백중(7/15)	칠석: 옷을 햇볕에 말린다. 칠석제를 지내고 기도 드린다. 백중: 절에서 제를 올린다. 불공, 씨름	
9		8월 백로 23일 추분	21일 추석(8/15)	추석: 한가위, 중추절이라고도 한다. 햇곡식으로 떡과 술을 만들어 조상에 게 차례를 지낸다. 편을 갈라 노래와 춤을 하고, 줄다리기, 그네뛰기, 닭 불잡기놀이 등을 한다.	송편, 토란국
10	1일 국군의날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8월 한로 23일 상강	11월 중구(9/9)	중구: 음력 9월 9일로 9가 겹쳤다는 뜻. 강남에서 왔던 재비가 다시 강남으로 돌아가는 날이라 하여 '중양'이라고도 한다	국화전, 화채(예, 유자, 석류, 잣 등을 잘게 썰어서 만듦)
11		7월 입동 22일 소설			
12	25일 성탄절	7월 대설 22일 동지		동지: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 "아세, 작은 설"이라고도 한다. 팥죽이 썩어지면 방, 마루 부엌, 광 대문, 벽에 미늘거나 뿌린 후 먹는다.	팥죽 먹기

세시풍속이란 일상생활에 있어 관습적으로 되풀이되는 민족행사로, 그 민족의 자연환경 및 풍토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오랜 세월동안 전승되어 생활화 된 것이다.

서울지부 회원의 날 기념 “겨울 기차여행” 후기 - 집다리골에서의 만남

주혜선 · 서울지부 회원

아래의 글은 서울지부 소식지 “아! 찾았다” 2001년 12월호에 실린 글로 주혜선 선생님은 서울지부의 신입회원이십니다.

서울지부의 총회가 끝나고 저녁식사를 마친 후 서둘러 향한 기차역에서 유일하게 내가 가까이 아는 전주선생님을 남겨두고- 이선주 선생님은 늦게 오는 다른 선생님을 기다렸다가 함께 읍-춘천으로 가는 기차에 올라탔다. 처음 만난 선생님들과 두 시간 동안 마주보고 갈 것을 생각하니 어색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나도 남아 있다 전주 선생님과 같이 출발할 걸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 생각은 기차에 자리 잡고 앉는 순간에 사라졌다.

처음 만난 선생님들이었지만 모두에게는 공동 관심사인 아이들이 있었기에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금세 가까워졌고 두 시간은 느낄 사이도 없이 지나갔다.

춘천역에서는 호연 선생님 부부가 정겹게 우리를 반겼고 그 틈에서 나도 어설프게 인사를 하고는 30분 남짓 걸려서 집다리골 휴양림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눈이 내려 온산이 하얗게 덮여 있었다. 올 들어 처음 보는 눈에 모두가 탄성을 질렀고 쉼 곳에 도착해서는 흙과 통나무가 잘 어우러진 숙박시설의 운치 있음에 또 한번 즐거운 소리를 질렀다.

호연 선생님이 준비하신 맛난 먹을거리에 마음을 풀어놓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밤을 보내면서 내 가슴 한 귀퉁이에 별이 드는 느낌이었다. 대화 속에서 선생님들의 아이들을 향한 깊은 애정을 느꼈고 나이 어린 호연 선생님의 열정에 내 안일함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새벽녘에야 잠을 청한 선생님들과 기막히게 고운 경치를 뒤로하고 부시게 맑은 공기에 취할 여유도 없이 전주선생님과 나는 아침 일찍 서둘러 서울로 향했다.

이제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기약은 없지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는 기쁨이 내 안에 남아 있는걸 보면 더없이 좋은 여행이었지 싶고 작은 체구에서 진솔하고 힘찬 삶의 향기가 우러나던 호연 선생님을 만난 것에 감사하고 있음을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전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지 싶다.

세상 속에는 참 좋은 사람이 많다. 나도 아이들에게만큼은 참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겁 없는 생각을 한다...

중간 간부 수련회를 다녀와서

김순아 · 부산, 회원

11월 초, 지부장님이 한국보육교사회 주최로 연수를 하는데 아이도 데리고 갈 수 있고 프로그램 또한 타이트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쉽’(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들도 많이 제공된 다며 가잔다. 올 가을 단풍 구경 한 번 제대로 못한지라 다른 말들은 다 흘려들고 ‘쉽’이라는 말만 머릿속에 가득 넣은 채 육아와 남편 뒷바라지에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자 함께 남원으로 떠나기로 했다.

11월 23일, 사상터미널에 선발대인 명선지부장님, 정애 선생님, 나 그리고 강산이, 온비(명선 샘 아들, 딸), 민호, 창호(정애샘 아들), 승우(내 아들)가 힘겹게 모여 아슬아슬하게 버스에 올라탔다.

후발대인 양희 선생님과 동하(양희샘 아들), 그리고 미애 선생님은 어린이집을 마치고 오기로 했다.

아이들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대해 걱정을 했었지만 다행히 먹고, 자고 하면서 무사히 남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남원은 예상외로 가까운 거리였다. 3시간이 소요됐으니 말이다. 남원터미널에서 숙소인 한국콘도까지도 5분밖에 안 걸려 주최측에 고마움이 느껴질 정도였다. 아이를 데리고 오랜 시간동안 차를 탄다는 것이 고역임을 엄마가 아니더라도 보육교사라면 다 알 것이다.

일단 짐을 풀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 모여드는 동안 콘도 앞 강변에서 놀았다.
남원은 건물들이 다 나지막하고 조용하며 강변 주위에 모여 든 사람들조차 한가로이 보여 모두가 "이런 곳에 살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사람들이 속속 모여드는데 우리 승우보다 더 어린 백일 된 아기부터 사흘간 강산이의 단짝이 되어준 한결이(초등5)까지 아이들만 20명이 넘었다. 한결이는 수련회 내내 우리 승우를 핏찍이도 귀여워 해주었고 마지막날 헤어지는 걸 무척 아쉬워하는 걸 보면서 아이나 어른이나 사람 좋아하는 건 달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첫 일정은 남원 하면 떠오르는 광한루 관광(?)이었다. 콘도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는데 가는 길에 떨어진 싱싱하고도 탱탱한 낙엽을 서로에게 뿌리며 "그래 이거야!" 하면서 역시 자연을 접해야 생기가 도는 걸 온몸으로 느꼈다.

이몽룡과 성춘향이 놀았다는 광한루에도 올라가 보고 월매집도 방문한 후 한 편에 마련해 놓은 널뛰기, 투호, 그네 등의 민속놀이를 해 보았다.

아이들을 가운데 앉힌 후 뛰어 보는 널은 서툴긴 했지만 모두가 신명이 났고 길다란 줄에 매달린 그네 또한 스릴 만점이었다.

한바탕 놀고 난 후 돌아가니 공동대표님들이 준비한 맛있는 저녁이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을 먹고는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모여 놀고(서울지부의 이선주, 박인해 선생님이 아이 돌보미를 해 주셨다) 어른들은 첫 번째 강의에 임하려 한 방에 모였다.

첫 강의는 이윤경 대표님의 "리더쉽과 대중조직화"였다.

머리가 좀 아파 오긴 했지만 열심히 강의 준비를 해 오신 이윤경 대표님의 성의를 봐서 열심히 들으며 분위기 파악에 힘썼다.

강의가 시작되고 조금 지난 후 미애 선생님과 양희 선생님이 그리고 동하가 들어왔다. 보육 일을 마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오신 두 선생님이 대단해 보이는 순간이었다. 더욱이 미애 선생님은 며칠 전 몸살로 결근까지 하셨다고 했다.

"리더쉽과 대중조직화"강의는 이제껏 내가 고민하지 않은 지부장님 이하 간부들이 하는 고민이라고 미워와 다소 생소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해야 할 고민임을 느끼며 벌써부터 책임감 같은 게 밀려오기도 했다.

첫 날의 일정이 끝나고(새벽 1시) 부산 숙소에서 모여 담소를 나누는데 그때 우리 승우가 깨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업고 나가잔다. 복도에 업고 나가니 눈이 말뚱말뚱해지면서 다시 잘 기세는 전혀 아니었다. 요구사항을 들어주다 도저히 안돼 엉덩이를 몇 대 때린 후(정말 그러면 안되는데) 겨우 재워 놓으니 잠이 없는 동하 또한 엄마랑 실랑이를 하다 2시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수련회 둘째 날 해가 떴다.

둘째 날은 내가 고대하던 '쉽'의 날이었다.

관광버스를 타고 지리산 자락을 휘돌아 실상사, 노고단 아래 고개까지 가보고 마지막으로 지리산 온천랜드에 가서 온천욕(사실 말이 온천욕이지 때 미느라 정신이 없었다)을 즐겼다.

그 중 실상사는 참으로 밤상치 않은 절이었다. 절 입구에 미국의 아프간 침공에 대한 비판의 글귀부터 시작해 북한 어린이들의 실상을 담은 사진 전시, 생태 뿔간까지 절 구석구석에 스님들의 의식이 살아 숨쉬는 듯 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두부마을'이라는 식당에 가서 두부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요리를 맛보았는데 거기서 동하가 2층 계단을 내려오다 계단 사이에 난 틈에 빠져 떨어지는 바람에 큰 일이 날 뻔했다. 다행히 다친 데는 없었지만 아찔한 순간이었다.

저녁을 든든히 먹고 숙소로 돌아와 그 날은 아이들을 일찍 재운 후 10시쯤 두 번째 강의를 들었다.

주제는 '보육교사회의 중장기 3년 계획 세우기'였다. 강의 시작 전 원활한 의견 개진을 위해 다섯 장의 발언 카드를 나눠줬지만 난 끝날 때까지 한 장 밖에 못 썼다. 할 말이 없었던 거였다. 둘째 날 또한 분위기 파악에 힘썼는데 영 말을 안 하는 내가 신경 쓰였는지 이기원 대표님이 맨 마지막에 말할 기회를 하사(?)하셨다.

이제껏 평회원으로서 편안하게 사고하려고 했던 나 자신을 반성하면서 내년엔 부산지부, 한국보육교사회를 진정한 나의 조직으로 받아 안아 중간 간부로서 일을 해보겠노라는 의지 표명을 하자 모두들 감동의 박수를 쳤다.(박수는 안쳤나?)

강의를 마치고 나니 2시가 넘었던가? 자고 싶었지만 이런 기회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여러 선생님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얘기를 나누었다.

난 수련회는 총회는 전국 단위의 행사엔 처음 참석하면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을 처음 만났다. 하지만 전혀 낯설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애정이 느껴지면서 내가 지금껏 부산지부에 발을 뻗지 못하고 있는 끈끈한 정을 전국의 선생님들에게도 느낄 수 있었다.

분위기 무르익을 때쯤 먼저 자러 간 미애 선생님이 승우를 안고 나타났다. 첫날밤의 악몽이 되살아나 급히 승우를 데리고 가 재우면서 나도 잠이 들면서 들쭉날쭉도 그렇게 저물었다.

다음날 아침 시누이가 예를 낳았다는 전갈을 받고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부랴부랴 짐을 챙겨 10시차를 타기 위해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남은 일정을 함께 하지 못한 채 부산으로 왔다.

지면으로나마 수련회에 참석하신 모든 선생님들을 만나 뵈어 기뻐하고 그리고 실무에 신경 쓰느라 고생하신 대표님들, 이경녀 선생님, 이선주 선생님, 박인해 선생님에게 안부를 전한다.

그리고 엄마 때문에 고생한, 아니 즐거웠던가? 하여튼 2박 3일간 별 탈없이 지내준 우리 아이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중간 간부 훈련을 다녀와서

최은하 · 인천, 회원

며칠 동안 잠 못 자면서 여행을 갈 곳을 생각해본다.

한국보육교사회가 주최하는 중간간부훈련을 남원에서, 춘향이의 고향에서 개최하는데 참석하게 되어서이다.

드디어 11월 23일 아침.

영등포에서 서울지역선생님들을 만나 기차를 탔다. 이선주 선생님의 아들 재룡을 보면서 맛있는 간식도 먹으면서 기차 창문너머로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들이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

남원역 도착, 한국콘도에 들어서니 다른 지역선생님들은 벌써 도착하였고, 아직 도착하지 않는 선생님들도 있었다. 간단한 인사와 반가움을 표시하였고, 저녁 먹기 전 남원에 있는 광한루로 산책을 가기로 했다. 콘도 앞마당에 흐르는 섬진강의 물줄기를 따라 오작교를 건너 광한루로 갔다. 초등학교 때 와보고 두 번째지만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남편이 지금 판소리 "춘향전"을 배우고 있어서 함께 왔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 다른 느낌으로 산책하였다. 저녁 일몰을 보며 그 아름다움에 빠져드는데 등뒤에서 이내 잠이 들어 버린 내 딸 해리. 함께 보았으면 좋을 텐데, 숙소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아이들은 아이들보는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 각 지역에서 오신 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조직논의를 하였다.

부산지역의 활기찬 모습이 부러웠다. 90년대초 인천을 보는 것 같았다. 상대적으로 지금의 인천의 모습에 가슴속에 있던 높은 탑이 점점 더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토론을 끝내고 잠자리에 든 아이들에게 옛이야기를 해주는 엄마교사들을 보며, 정말 우리 보육교사 선생님들은 좋은 부모, 좋은 교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보다 좀 더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정말 훌륭한 보육교사 선생님들임에 틀림없다.

다음날 아침, 오늘 하루는 남원지역 관광을 하기로 한 날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관광버스를 타고 운전사 아저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첫번째로 들린 곳이 춘향이와 이몽룡이 사랑을 나누었다는 남원에서 춘향이의 묘를 둘러보았다. 춘향묘에 가서 지윤이와 해리, 광희(?)는 큰절을 하고 내려오면서 낙업을 보는데 늦가을색 바랜 낙엽이 말로 표현 못 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다음에 꼭 시간 내서 가을에 단풍구경 한 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두번째로 실상사라는 절에 들었는데 이 절은 약불상이 아주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한쪽 손에 약병을 들고 앉아있는 약불상은 병든 사람들을 기도를 하면 도와준다고 한다. 그 불상이 어찌나 큰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이 사찰은 옛 모습 그대로의 고전미를 풍기고 있어 순간 어린 시절을 되돌아온 것 같은 착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인천지부의 이현주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에 감사한다.

세 번째로 간 곳은 내가 한번쯤 꼭 가보고 싶었던 노고단으로 출발하였다.

아들 지윤이는 현주 선생님의 손을 잡고 씩씩하게 올라가는데 딸 해리는 등뒤에서 스스로 또다시 잠이 들고.....

노고단을 바라보며 이제는 계단만 남겨 놓았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못 올라가는 심정을 산을 좋아하는 내겐 무척 아쉬웠지만 여러 회원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 고집만 괴우면 안 될 것 같아 눈물을 머금고 하행을 하였다.

자랑스러운 지윤이는 현주선생님 덕분에 정상을 정복하고, 다음으로 간 곳은 온천.

시간이 부족해서 한시간 30분정도 우리는 알몸으로 이곳 저곳을 다녔다.

수영장도 있어서 수영도 할 수 있고 온천에서 샤워도 하고 처녀선생님들은 여기 저기 피해 다니지만 아줌마선생님들은 당당하게 알몸으로 온천욕을 맘껏 즐겼다.

마지막 밤, 짧은 일정이었지만 관광은 끝나고 아이들이 잠들자 선생님들은 다시 모여 한국보육교사회의 발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각 지부의 활동상황과 조직논의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끝으로 2박3일의 만남을 접어야 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인천지부의 현실이 문득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 온다.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해선 안 되는데 말이다.

이 행사를 후원해 주신(아이들의 미래)에 감사드리며 준비하신 중앙 사무국 선생님들께 무한한 애정을 보내고, 사진작가(?) 박인해 선생님과 서은희 선생님 아들 한결이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다. 2박3일 동안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겐 소중한 만남이었고 한국보육교사회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부지런한 태음인 - 고영미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배의 맘속에 후배는 늘 시작하던 때의 그 모습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재혁이 엄마가 되어있는 고영미 선생님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 넉넉하고 -결코 몸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편안한 모습은 그대로이더군요. 고영미 선생님을 다시 만난 건 지난번 남원에서였습니다. 중간간부수련회에서 아주 열심히 조직에 대해 이야기하던 모습이 인상깊었지요. 이제는 나이 들어 중간에서 조금 더 된 선배가 된 고영미 선생님에게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1. 아침에 일어나서 침 하시는 일이 뭔가요?

맨 먼저는 시계를 봅니다. 늘 허둥지둥하면서요. 워낙에 아침잠이 많아서 지각하기 일수거든요. 태음인이 게으르다던데 전형적인 태음인 체질의 소유자라는 걸 실감하죠(사실 집에서 어린이집까지는 걸어서도 30분이 안 걸립니다)

2. 그럼 저녁에는 수다맨 아들 재혁이와 주로 무엇을 하며 보내시나요?

육아에 어려움을 안고 있는 다른 동지들에게 재미나게 저녁시간을 보내는 좋은 방법에 대해 혹시 귀뜸해 줄 것이 있는지....

사실은 저녁시간을 함께 해주지 못하고 그냥 잠만 재울 때가 더욱 많지만 가끔 시간이 넉넉하면 직업이 직업인지라 저녁탁아를 하듯이 수선을 떨며 만들기에서 그리기, 밀가루 반죽놀이.... 안 하는 게 없는데 제일 자신 있는 건 아무래도 그림책 읽어주기입니다. 그림책 모으하면서 상당량의 그림책을 소유하고 있걸랑요. 단행본으로만 한 300권 됩니다.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읽어주다 보니 나이에 걸맞지 않는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해서 요즘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글이 많은 걸 읽어달라고 하면 더욱 그렇죠. 게임을 해달라고 조를 땐 인터넷

교육방송 들어가서 '방귀대장 뽕뽕이'나 '앗!동화책이 움직이네'를 틀어주기도 합니다. 요즘은 유료화가 되서 매주 무료로 볼 수 있는 동화만 일주일에 한번씩 보여주죠. 얼마 전에는 디오스 냉장고 박스를 주워다 색칠하고 구멍내서 작은 집을 만들어서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뛰니뛰니해도 제일 재미있는 건 요리 만들기라 먹기 놀이입니다. 호박전 만들기 정도는 재료만주면 혼자서도 할 수 있을 정도(칼로 썰고 밀가루 계란 옷 입히고 후라이팬에서 뒤집기....)가 되었습니다(참고로 아들놈은 해가 바뀌어서 5살입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비슷하죠?

3. 전 개인적으로는 저녁시간을 '재미나게'가 아니라 '빨리지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밤소리를 합니다. 가고 오고 쇼핑하는데 두 시간은 족히 걸리거든요. 그 과정에서 지친 아들네미는 나머지 저녁시간은 조용히 놀게 되어있거든요. 엄으로 조금 일찍 잠들기도 하지요. 뭐 권장할 방법은 아니구요. 고영미 선생님은 어떻게 처음 보육교사 일을 시작하시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보육교사회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88년도 친구언니(이은애선생님)의 권유로 탁아소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었구요. 졸업 한 뒤로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하던 차에 한겨레신문에 난 지역사회탁아소 연합회 탁아교사 모집광고를 보고 남영동 사무실로 전화하고 찾아가서 교육받고 안산으로 실습 겸 자원봉사를 갔다가 코빼었죠. 남영동 사무실에 갔을 때 저를 보고 놀라시던 선배님들 생각합니다. 아무런 인연이나 정보 없이 무작정 찾아든 교사는 거의 없던 시대니까요.

4. 그때와 지금, 아이들을 바라보면 늘 한결같이 드는 생각은 어떤 건가요?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마구 해줘야한다고 느낄 때가 많았어요. 일하는 엄마를 대신하고 있으니 책임감이 먼저 들어서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 땀에 속상한 것보다는 엄마들 땀에 속상할 때가 많았는데 아이들이 더 없는 위로가 되어 줄 때가 많았어요.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은 늘 저에게 즐거움을 주고 저를 끊임없이 발전(?)하게 해주는 원동력 이예요. 아이들이 아니라면 공부하겠어요?

5. 그럼요. 이건 모든 회원들이 공감하시는 생각일 것 같네요. 강산이 한번 번갈 만큼의 시간이 지났으니 그만큼 아이들도 변하고, 또 고영미선생님 생각도 달라진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심심해하는 아이들이 참으로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방과후를 하고 나서는 남은 시간을 어찌 보낼 줄 몰라하는 아이들이 더욱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거리나 놀이방법을 가르쳐주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알고있는 방법이란 게 친구가 있어야하는 게 많아서 요즘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주고 과제를 주려고 여기저기 귀동냥에 눈동냥도 하는데 발도로프교육에서 참 많은 힌트를 얻곤해요.

6. 방과후 반을 하고 계신데.. 방과후반에 대해서 이야기에 주신다면요?

방과후 아이들과 지내는 건 정말 신나요. 여태껏 유아들이나 하는 거라고 알고있던 놀이나 교육내용이 사실은 방과후 아이들이 하는 게 옳은 것이 많거든요. 무슨 활동이던지 신나게 할 줄 알고요. 응용도 빨리 하구요 그래서 결과물을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땐 더욱 신나죠. 친구들과 어울려 놀 줄 알기 때문에 더욱 귀엽죠. 주위선생님들은 다 큰아이들이라고 하지만 실은 아직은 아이들인 걸요. 가능성도 무궁무진 하구요. 같이 즐길 수 있어서 더욱 좋아요. 힘든 점은 제가 너무 무식하다는 거죠. 많은 양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하는데(혼합연령이다보니) 교육활동 연구시간이 별로 없어서 깊이 있는 활동을 개별아동 수준에 맞게 해주지 못하구요. 정보력도 딸리구요. 함께 활동을 고민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도 어려움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방과후 아이들은 가정환경이 유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어려워요. 한부모가정의 아이들도 많구요. 정도차이는 있지만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많구요.

7. 고영미선생님이 무식하다니요?? 그 오랜 동안의 경험과 연구의 경험들이 많은데.. 지금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주부, 엄마, 학생(고영미 선생님은 지금 아간대학 사회복지학과 학생), 게다가 경기지부 일꾼까지 일인 다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힘에 부친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일이 많아서 힘들지는 않아요. 육체적으로 힘이 딸릴 땐 쉬엄쉬엄 할 줄 아는 요령도 조금은 알거든요. 아이에게도 미안함보다는 당당함으로 대하려고 많이 노력하죠. 하지만 가끔은 버리가 명 할 때가 있어요.(주로 이럴 때 아프죠) 나를 바라보는 차분한 시간이 부족한데 이걸 무슨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알 듯도 한데 잘 정리가 안되네요.

8.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는데 지난 2년간을 회상하며 가장 기뻐할 때와 앞으로 일과 공부를 병행할 후배들에게 미리 조언을 해주실 말은 없나요?

학교를 다닌다는 게 참으로 힘이 많이 들더라구요. 우선은 잠이 부족하죠(과제 때문에) 교수님 중에 지탁연을 알고있는 분들이 있어서 보육교사회 먹칠하지 않으려고 신경쓰다보니 더욱 그랬구요.

가장 기뻐했던 일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이 너무 자랑스럽구요. 올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일과 공부를 병행하실 분들에게는.. 재정문제를 미리 해결해놓는 것. 그리고 식구들과 역할을 나누는 합의를 충분히 받아내면 더욱 좋구요. 특히 아이가 있다면 남편말고 다른 조력자가 꼭 필요합니다. 공부 따라가는 건 걱정하지 말구요. 그 동안 보육교사를 성실하게 하셨다면 다 소화됩니다. 우리는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현장실무자잖아요.

9. 고영미 선생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뭔가요?

내 일에 대한 자부심과 철학이지요. 너무 거창한가?

10. 보육교사회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요?

그 어떤 조직보다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조직이 바로 보육교사회입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저를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준 저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랜 시간을 아이들과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배와 동료들을 믿고 함께 한다면 아이들과 더불어 나도 성장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보육교사회입니다.

11. 작년에 경기지부의 창립이 있었고 올 2002년은 경기지부로서는 의미 있는 한해가 될 것 같은데... 조직부장으로써 2002년 경기지부의 원대한 포부를 밝혀주신다면?

아직 회원수가 많지 않아서 걱정입니다만 잘 해낼 거라 믿고 경기지부 회원들간에 더욱 뜨거운 동지애가 생길 바라며 각 지회에서 계획중인 교육소모임이 성공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12. 새해 첫 우리네아이들 인물탐방에 등장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새해소망 한마디?

제 차례가 이렇게 일찍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작년, 제작년 통일의 기운이 막 오르려 는 듯이 보여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되려니 싶었는데 아직도 먼 게 아닌가 싶어 조금은 우울한 데요. 하루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소망이구요. 보육교사회가 날로 번창해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만 선착순으로 회원 가입이 되는 때가 왔으면 합니다.

13. 이 글을 읽을 모두에게 덕담한마디 해주세요.

올 한해 모두 건강하시고 많이많이 사랑하십시오. 특히 광주의 화명선생님 빨리 회복하셔서 그 해맑던 미소를 보여주세요.(광주의 박화명 선생님은 고영미 선생님의 바람대로 매우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힘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영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란 생각이 절로 듭니다. 본인은 전형적인 태음인의 게으름을 가지고 있다고 겸손하게 이야기 하지만 자신을 다지는데 게으르지 않고, 조직에 대한 한결같은 애정을 가진 고영미 선생님! 지금 같은 모습으로 늘 모두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주시길...

어린이집에서의 건강일지

안경자 · 서울, 동근나라어린이집

1. 건강일지를 작성하게 되기까지

지난해 한국보육교사회에서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후 인의협)의 의사선생님과 함께 '어린이집의 건강관리프로그램 모형 개발'을 위해 서울 중심의 몇 개의 어린이집과 함께 건강교사모임을 하며 어린이집에서의 건강관리에 대한 활동을 진행했다.

처음 건강교사모임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어린이집은 영아들이 많고, 부모님들이 거의 맞벌이를 하고 있어 병원 다니기도 힘들고, 통원치료를 위해 아이들에게 많은 시간을 낼 수 없으니 아주 잘 됐다는 생각을 했다.

좀더 솔직하게 말하면 아이들 건강을 점검 해 주실 전문의가 매달 오신다는 사실이 교사들에게는 큰 기대와 위안이었다. 우리는 도저히 해 낼 수 없는 전문적인 일을 선생님이 와서 해결해 준다는 사실에 기대를 품고 교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선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시작한 건강교사 모임은 의사 선생님의 철저한 준비와 요구사항들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을 이해하고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사 선생님이 해야 할 일 보다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교사가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일들이 보육교사에게는 쉽지 않은 일임을 알게 되었다. 이미 장시간 근무와 과중한 업무를 안고 있는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에 대해 교사들과 교사회의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건강교사모임에 참여하면서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일지를 작성하고 아이들이 잘 걸리는 병을 체크 해 보기로 했고 그렇게 해 왔다. 건강교사모임에서 시도했던 성장도표 작성하기, 주치의 선정하기 등은 업무를 내지 못했으나 교사들이 건강일지를 잘 정리하면서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되었다.

2. 교사들과 건강관리에 대해 나누기

매주 수요일 교사회의 때 각반 보고를 하면서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 보고를 했는데 그때 건강일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원아 정원 중 60%가 영아이기 때문에 성장 도표나 주치의

선정, 구급함꾸리기 보다는 건강일지를 잘 쓰면 의사선생님 말씀처럼 아이들이 무슨 병에 잘 걸리고 주기적으로 언제 어떤 병이 걸리는지 관찰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교사들이 합의를 했다. 건강일지를 잘 작성해 줌으로 해서 부모님들과 교사가 신뢰감을 쌓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를 갖기도 했다. 또 2학기부터는 유아반 아이들은 매주 금요일은 대청소하는 날로 정해 아이들이 각자 걸레를 갖고 놀이감을 닦고 교실 청소를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 낮잠 자기전 매일 청소를 하고 있다. 깨끗이 한다는 개념보다는 자기만의 공간을 스스로 치운다는 데 더욱 열심인 것 같다. 시간이 흐르면서 청소를 즐기는 아이와 별로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 있는데 선생님은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시간에 선생님도 함께 청소를 한다.

3. 평가하며

건강교사모임을 통해 보육교사들과 아이들 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처음엔 귀찮고 힘들었는데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나름대로 건강일지를 작성하고 또 정확하게 작성하려고 하다보니 아이들이 어떻게 아픈지, 자면서 기침을 하는 아이는 누구인지 확인하게 되었다. 아이들을 좀더 내 내면 안으로 깊숙히 끌어안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아이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 설계사 선생님의 꼼꼼한 건물 평가를 통해 보수되어야 할 곳은 앞으로 계획을 잡아 하나, 둘 보수를 할 예정이다. 낡은 건물이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환기와 통풍이 양호하다는 평가는 조금에 위안이 되었다. 다음에 다시 방문해 손수 방수 처리까지 해 주신 선생님의 철저함에 감사를 드린다.

4. 제언

건강교사모임과 어린이집에서 건강일지를 작성하며 이러한 내용은 보다 더 많은 보육시설로 확대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를 위해 보육교사들을 위한 교육 강화를 열었으면 한다. 교육강화를 통해 아이들의 신체 구조의 이해와 병의 예방 또 민간요법, 적절한 환경구성 등의 지식을 함께 쌓는다면 더욱 좋을 듯 하다.

그리고 아동의 건강관리에 있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 건강일지 작성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기를 바라며 우리 어린이집에서 작성한 건강일지 예를 소개하고자 한다.

동자꽃반 이름: 박이00 (2000.2.28생)

날짜	증상	관찰소견	처치내용	병명
8/16	꽃물(+) 열(-) 기침(-)	맑은 콧물이 조금씩 흐름		
8/17~18	꽃물(+) 열(-) 기침(+)	꽃물과 기침이 1~2번정도 하였음		
8/20	꽃물(+) 열(+) 기침(+)	기침 심하게 하고 맑은 콧물이 여전히 흐름 열이 38, 37.5, 38		
8/21~24	꽃물(+) 열(+) 기침(+)	(심한 감기로)열이 계속 오름. 기침도 심하게 한다고 함. 콧물도 많이 나와 코막이 했었음. *휴원 중 한의원에 가서 양약 중단. 한 약으로 복용. 한의원에서 체기가 있 다고도 함. 한약복용 후 열은 내렸 다 함	휴원 (집에서 병원 약 투약)	
8/24~26		감기로 집에서 휴원		
8/27~30	꽃물(-) 열(-) 기침(+)	집에서만 기침 어린이집에서 듣지 못함	약복용	
8/31	꽃물(-) 열(-) 기침(+)	감기 나음		

들꽃반 이름: 김00 (99.9.13생)

날짜	증상	관찰소견	처치내용	병명
11/23	꽃물(+) 열(-) 기침(+)	기침과 누런 콧물이 있음. 누런 콧물이 많이 흘러 숨쉬기에 답답해함. 몸이 부 칠 때까지 몸을 혹사하면서 놀. 낮잠도 자지 않고.	점심 후 병원약. 코를 자주 풀게 하고 자주 씻겨줌	
11/24	꽃물(+) 열(-) 기침(+)	여전히 기침과 누런 콧물 있음.	점심 후 병원약	
11/26	꽃물(+) 열(-) 기침(+)	기침과 누런 콧물. 누런 콧물로 답답해 보임.	점심 후 병원약 자주 씻김	
11/27	꽃물(+) 열(+) 기침(+)	쉬지 않고 무리하게 놀아서 열이 오르 며 5시 이후에 자침함. 일어나서 쉬게 하 고 5시30분 열이 38. 해열제 6ml투약. 씻기고(미지근한 물) 물수건 해줌. 열 있는 동안 누워 쉬려 하지만 37로 내리 니 다시 움직이려 함. 열로 인해 소변 조절이 안되어 10분에 1회정도로 자주 소변 봄.	오전/점심 후 병원약 물수건/해열제 미지근한 모과차 씻 김 때 점심을 모두 토 함(김구이/떡두기/무 국)	
11/28	꽃물(-) 열(-) 기침(+)	오전 동원시 38도로 열이 있어 약 투 약 후 11시 다시 재어 보니 36.5도 경 산채은. 열은 오르지 않았으나 콧물이 많아 자주 콧 막힘. 기침은 지속적으 로 함. 엷은 채 1시간 정도 낮잠잠. 잠 자는 동안 기침 없음. 일어나서 기침 을 조금씩 함.	오전/점심 후 병원약 코를 자주 풀게 하고 씻기고 함. 미지근한 물을 자주 먹게 하고 쉬를 자주 할 수 있게 함.	

육아상담 Q & A

아래의 내용은 본지 홈페이지 육아상담실에 들어온 상담에 대한 답변으로 보육시설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는데 보육교사들을 고민스럽게 하는 내용들을 뽑아 소개합니다.
이 글을 구독하시는 여러분 중 아래의 상담에 대해 더 의견을 추가하거나, 또는 다른 의견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음 호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Q1... 한 때는 왕건이다 외치며 전쟁놀이를 하더니 그 불이 사라진 후 총, 칼 놀이를 하네요.

길에 떨어진 나뭇가지만 보아도 이면지 접어 테이프 땀 붙여놓고 칼이네, 총이네.

아이들에게 총과 칼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왜 부모님들은 총과 칼을 사줄 수밖에 없는 걸까요?

단순히 지나가는 놀이는 아닌 듯 한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줄까요?

다른 곳으로 관심을 유도해보려 하는데 그 방법뿐인지...

A.... 아이에게 놀이는 단순히 즐기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놀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감성을 만들어 간다고 할 때 어떤 놀이를 하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령이 어린 경우 텔레비전이나 다른 매체에서 알게된 정보나 인상적인 장면을 재현하는 일은 흔히 있는 모습입니다. 무조건 못하게 하기보다는 왜 칼과 총이 무서운 무기인지에 대해 이야기나누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이들은 총과 칼이 살상용 무기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무기가 사람에게 어떤 위협이 되는지를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의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신체를 많이 움직이면서도 폭력적이지 않는 놀이나 게임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함께 놀아보는 과정을 가지는 것이지요. 협동놀이나 미술작업 시 공동작업의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요. 전쟁의 무서움이나 폭력의 문제를 다룬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교사가 막연히 칼과 총으로 노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평화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평소에 아이들과 더불어 살고 함께 해서 즐거운 놀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총놀이보다 더 재미있는 놀이를 찾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놀이문화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Q2... 한 달도 안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정말 초보 선생님입니다.

저의 고민은 아이들이 저의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저 실습 때는 좀 무섭게 해야 말을 듣는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계신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존칭을 쓰며 이야기 하셔도 아이들이 말을 너무 잘 들어요 너무 답답하죠 근데 우리 반에 말을 정말 안 듣는 아이가 있는데 잘못된 행동을 하여서 "오야, 그곳에서 내려오렴" 하면 "싫어요"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주 "싫어요"라고 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도와주세요. 정말 정신없고 저 정말 너무 힘들어서요.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도 정말 고민입니다

A.... 정말 힘드시겠어요.

먼저 심호흡을 하시고 느긋하게 마음먹으세요.

아이들은 원래 말을 안 듣는 것이 정상이죠. 한번 이야기해서 알아듣고 척척 한다면 그건 이미 아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아이들과 친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을 아주 좋아하게 된다면 선생님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좀더 말을 잘 듣게 되지요. (물론 이 경우도 자기기분이 안 좋을 때나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유놀이 시간에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아 준다거나 등하원시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고 아이를 안아주는 것 등 아이들과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야단을 치거나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요. 아직 한달 밖에 근무를 안 하셨다면 아이들이 선생님의 스타일과 행동기준에 대해 잘 인식이 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의 분위기나, 해서 될 일과 안 되는 일을 정하는 규칙을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이야기 나누기시간에 반에서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것도 방법이지요. 이 경우 너무 많은 규칙을 정한다면 지키기도 어렵고 기억하기도 어렵지요. 꼭 필요한 규칙들- 예를 들어 교구장이나 위험한 장소에 올라가지 않는다, 물건을 던지지 않는다. 하는 정도로 정하고 왜 그런 행동이 나쁜지, 그런 행동을 하면 다칠 수도 있고 다른 아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규칙을 지키지 않는 아이가 있을 때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아이에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그러면 안돼" 하고 말해 주세요. 이때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선생님이 규칙에 대해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요. 교사가 절제되고 분명한 태도로 생활한다면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니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가 교사의 말을 안 듣는 이유가 교사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야단을 맞더라도 교사의 관심을 끌고 싶어하죠. 왜냐하면 많은 아이들과 교사 한 명의 애정을 놓고 경쟁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는 "싫어요"라는 말에 관심을 적게 보이는 편이 좋습니다. 마음에 안 좋은 행동을 하거나 규칙을 어길 때 간소리를 하거나 계속해서 꾸짖으면 아이들은 오히려 반복하는 경향이 있지요. 안 되는 것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을 반복할 때는 그것이 크게 위협하거나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무시해버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싫어요' 하고 이야기하는 아이는 선생님이 그 말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못들은 척 무시하거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행동하세요.

무엇보다 아이들과 지내는 과정은 여유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많은 다른 교사들의 조언을 듣거나 다른 교사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보세요. 다들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도 아이들과 함께 할 방법을 찾아 연구하다보면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생기실 거예요. 힘내세요.

Q3... 안녕하세요...

올해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보육교사 1년 경력을 채워가는 중인 초보교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다른 곳으로 근무지를 옮겼는데 이곳에 정말 다루기 힘든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4세정도 인데 새로 온 선생님과 꼭 힘겨루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리 호락호락(??)한 선생님이 아닌데 아직은 저 또한 그곳에 익숙하지 못해서인지 그 아이가 정말 대고 짜증을 내어도 마땅한 대안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곳에 있던 선생님 또한 그 아이가 사소한 일에 울고 짜증내고 물건을 던지고 친구를 때려도 심하게 혼내지는 못하고 신경을 안 쓰다가 30분 정도 울며 짜증내면 그냥 경고만 줍니다. 그리고 제 손이 닿거나 옆에만 가면 짜증을 부립니다.

일주일정도 지난 지금은 제 주의를 끌려고 일부러 제 곁에 오지만 이제는 제가 상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저 또한 힘이 듭니다. 그렇게 그 아이의 행동을 받아주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한번 정도는 강한 벌을 주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폭력은 절대 아님)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는 아주 잘 지내는데 아직 저를 낯설어하고 경계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스킨십을 잘하는 편인데 그 아이에게만은 스킨십이 힘듭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A.... 아이가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흔히 쓰이는 것이 행동수정입니다. 먼저 교정하고 싶은 행동이 무엇인지 목록을 작성하고(짜증, 물건을 던지는 행동) 그것이 하루 중에 주로 언제 일어나는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관찰기록 합니다. 그리고 3~4주정도 기간을 정해서 행동수정을 하는데 대개는 부정적인 행동에는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고 긍정적인 행동에는 적절하게 강화(칭찬, 관심 보이기, 안아주기 등)를 주어 부정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행동수정을 할 때는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부정적 행동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기는 매우 어렵고 예를 들어 하루에 10번 정도 일어나는 부정적 행동을 하루에 3번 정도로 줄이는 것으로 목표를 둘 수 있겠지요.

아이들이 짜증을 부리는 경우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은 경우,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하거나 잘못 학습이 되어서 일상적으로 짜증을 부리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동 자신에게는 자연스러운 경우,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교사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아 보려고 하거나 혹은 관심을 끌기 위해 그런 방법을 쓰는 경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태일 때 그런 행동이 나오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런 행동을 보일 때 다른 교사의 대응방식은 어떤지도 살펴봐야겠지요. 교사가 같이 짜증스러워 하거나 불쾌한 기색을 보이거나 야단을 하면 그것 자체가 아이의 행동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야단을 맞는 것이 무관심보다 낫다고 생각하지요. 일단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으니까요. 아이가 짜증을 부리지 않고 잘 노는 시간이 있다면 교사와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말을 걸거나 같이 놀아주는 시간을 잠깐 가질 수도 있습니다.

스킨십은 아이들과의 관계 형성에서 아주 중요한 기술이지만 아이에 따라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별로 스킨십을 통한 애정표현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 아니면 아이의 감정 상태나 몸 상태가 스킨십을 원하고 있지 않은데 타이밍이 맞지 않은 상황에서 스킨십을 하는 경우 아이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게 되지요. 큰 문제는 아니니 아이와 천천히 친해지도록 하세요. 교사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느끼고 교사를 좋아하게 된다면 스킨십도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아이의 개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마음 상하시거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미어린이집의 아이들

오윤정 · 서울, 한미어린이집

01 경태의 변신

경태가 전라도 영암 할머니 댁에 갔다가 한 달만에 돌아왔는데 영암이 워낙 바람이 센데다 밖에서만 논 경태는 새까맣게 얼굴이 타고 살이 트기까지 해서 양 볼에 감장 껍개 다닥다닥 붙은 것이 보였다. 그 모양을 본 교사들이 너무 우스워서 경태 앞에서 웃으면 경태는 교사들에게 막 달려들어 웃지 말라고 화를 내니 교사들은 안 웃는 척 하며 즐거운 오전이 지나갔다.

점심시간 아이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경태에게 지원이가 묻는다.

"경태야, 너 얼굴이 왜 그래?"

그러자 옆에 앉은 지현이가 따라 묻는다.

"어? 탄 거야!"

그러자 경태가 하는 말.

"아니야~~, 탄 게 아니라 뽀·신·한 거야~~!"

02 선생님은 좋지만...

어느 날 하원 차량에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주현이가 말했다.

"우리 선생님이 우리한테 재미있는 것도 해 주시고 도움도 주고, 얼마나 좋은데!"

그 말을 들은 효이 정색을 하며 따지듯이 말한다.

"아니야! 선생님이 우리한테 돈은 안 줘!"

그 말을 들은 지현이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말한다.

"그래, 선생님이 돈은 안 줘."

소연이의 끝말잇기

전경숙 · 경기, 회원

추석 연휴 지내고, 부산 시대에서 기차 역 가는 택시 안.

6살 소연이가 대학생 사촌 언니에게 끝말잇기를 하자고 제안한다.

글썽도 모르는 놀이 무슨 끝말잇기를 할까 싶어서 가만히 지켜보았다.

—질거 - 거드랑이 - 이빨 - 빨래 - 래비두(내비뒤)

래비뒤? 응, 래비뒤가 뭐야? 소정이가 메쓰고 올면 엄마가 래비뒤 하잖아

집안 비리가 다 드러나네. 소연이가 엄마한테 불만이 많았구나.

글썽을 몰라도 끝말잇기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제법 잘한다.

그후로도 몇 번 더 해보았는데 거의 끊기지 않고 해낸다.

처음에는 우리애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 해보니 그것이 아니었다.

언어는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가 있는데, 우리는 늘 읽고 쓰기만 강조하고 그것 중심으로 학습이 진행된다. 사실 순서 상으로도 바깥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제일 처음이고, 그 다음 말하고, 문자를 읽고 제일 고도의 기술인 쓰기는 제일 나중인데... 그래서인가? 읽고, 쓰기를 다하면 언어교육은 끝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듣고 말하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남의 말을 잘 듣고 잘 말하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 전에 정승각 선생님의 그림책 강의를 들은 일이 있었다. 가장 와 닿은 말 중의 하나가 아이들이 개념화된 사물을 본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에게 나무를 그리라고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식(기둥은 갈색, 나뭇잎은 초록)으로 그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는 아이들은 나무를 본적이 없거나 자세히 본적이 없는 아이들이다. 나무를 만져보고 관찰한 친구들은 나무 가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려준다는 것이다. 우리가 제일 경계할 것이 바로 개념화된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개념화 된 교육, 그것의 대표 적인 것이 문자교육이 아닌가싶다. 물론 어느 연령정도가 되면 개념화 된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한창 모든 감각을 열어 사물을 알아 가는 유아에게 성급한 문자 교육은 반대한다.

소연이도 글자에 관심이 많은 나이가 되었다.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소연이가 글자

한자어부터 읽는 아이들

를 다른 아이보다 늦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너무 빨리 배워서 사물을 글자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다. 소연이가 글자를 다 알기 전에 해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 그림책도 많이 보여 주고 싶고,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고 싶다. 그런 후에 글씨를 알아도 늦지 않으리..

애들 아빠는 생각이 다르다. 요즘 아이들이 글씨 다 배우고 심지어 구구단까지 배우고 초등학교에 가는데, 학교전도가 그런 아이 중심으로 맞추어 나간다면 분명 우리 아이는 힘들어 할 것인데 왜 아이를 사서 힘들게 하냐는 것이다. 미리 배운다라.... 미리 배운다면 도대체 어느 만큼 미리 배워들지 ...

아는 분의 아이가 정말 글자를 모르고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1학기 때는 그래도 '나 너 우리'를 배우다가 2학기 들어서면서 받침이 많이 들어간 문장을 받아쓰기해서 받아쓰기가 거의 다 틀렸다고 한다.

아이가 얼마나 좌절감이 컸을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엄마는 의외로 의연하다. 그렇게 틀렸으면 그 다음 부터는 기를 쓰고 공부하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그것은 하나의 공부하는 자세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실지로 그 다음부터 점점 성적이 좋아졌다고 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 아이가 0점 받아 오면 얼마나 의연해질지 자신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7살이 되어도 글자교육보다는 그것을 할 시간에 다른 것을 더 시켜 주고 싶다.

다른 교사들은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당신의 아이가 글자를 모르는 유아라면 같이 끝말잇기를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할지 기대 하면서....

좋은 그림책 소개

황소의 전쟁과 세계의 방편

황소아저씨

오윤정

서울, 한미어린이집

글 권정생, 그림 정승각 / 길벗어린이 / 7,000원



문학의 즐거움은 자신의 경험과 결합했을 때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갔던 시골집의 기억이 이 그림책을 자주 들여다보게 합니다.

지난겨울 이맘 때 전남 영산포 어느 시골에 아이들과 함께 겨울 여행을 갔습니다.

다섯 시간을 넘게 기차를 타고 또 승합차로 바꿔 타고 들어간 시골은 김이래야 이실 재를 넘지 못할 정도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집들은 웅기총기 모여 골목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묵은 집은 따로 혼자 길가 쪽으로 한 발 앞에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것처럼 마당에서 길가 쪽을 바라보면 신작로 너머 저수지가 내려다보입니다.

이제 그때의 겨울밤을 이 책에서 같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겨울밤 백색 숨소리를 내며 잠자고 있는 황소 등을 타고 구유 쪽으로 생쥐가 달려갑니다. 돌아가신 엄마 대신 동생들에게 줄 먹이를 찾으러 나온 생쥐입니다. 마음씨 좋은 황소아저씨는 구유의 음식을 나누어줍니다. 동생들과 언니 생쥐는 황소아저씨와 친구가 되어 겨울이 다 지나가도록 따뜻하게 함께 살았답니다.

이 그림책은 색의 느낌이 강하게 전달됩니다. 밤의 느낌이 검정색이 아닌 푸른빛과 흰색으로 나타냈는데, 아주 적당한 듯 합니다. 누구든지 시골의 겨울밤을 보았다면 맞다 할만큼 서늘하면서도 아름답게 그렸습니다. 배경의 자세한 묘사보다는 색으로 느낌을 표현한 듯합니다.

황소와 생쥐들이 함께 살게 되면서 그 겨울밤의 색은 따뜻한 노란빛을 띠니다. 마치 추운 겨울에 따뜻한 구들에 화로를 앞에 두고 앉아 있는 느낌이 듭니다.

큰 덩치의 황소아저씨의 마음도 따뜻하고, 동생들을 챙기는 언니 생쥐의 마음도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문체가 좀더 큰 아이들의 동화를 읽는 듯 하지만 선생님이 잔잔히 읽어주고 아이들이 그림을 본다면 충분히 이야기의 메시지가 전달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 책에서는 찾기 힘든 아름다운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추운 겨울에 남을 생각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씨를 이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배우길 바랍니다.

도시의 겨울의 느낌에 익숙한 아이들, 하얀 눈보다는 먼지와 섞여버린 눈을 보기 심상인 아이들,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불빛에 익숙한 아이들, 화려한 색상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지루하고 낯설게 여겨질 수 있지만 선생님이 이 책을 혼자서 읽고 또 읽고, 그림을 찬찬히 보고 아이들에게 읽어준다면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이 되겠지요. 물론 생활에서 경험하지 않은 것을 글과 그림을 통해 간접 경험하는 것이기에 한계가 있겠지만 추운 이 겨울에 꼭 읽고 싶은 책입니다.

작년에 갔던 그 집 마당 한 칸에 소가 살던 외양간에 소는 사라지고 버려진 농기구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그림책을 읽다보면 그 외양간에 살던 마음씨 착한 황소 아저씨를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21세기의 전쟁과 세계의 바람

전통교육을 위한 사이트

박상희 · 회원

9월 11일 세계적으로 그 유래가 없는 테러가 미국의 한복판에서 일어났다. 미국과 자본주의의 상징인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지는 대 참사와 살아 남기 위해서 그 높은 빌딩에서 스스로 몸을 던지던 모습을 잊기 힘들다. 사상 유래가 없는 이 테러의 배후인물을 미국은 즉각적으로 오사마 빈 라덴으로 지목하고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그에 대한 응징을 단행할 것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테러공격 직후부터 예고됐던 '21세기 첫 전쟁'이 드디어 발발했다. 미국은 10월 7일 밤 영국과 합동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주요 군사시설 및 공항 등에 대한 공습을 개시해 테러 세력에 대한 물리적 응징에 착수한다고 했다. 이번 전쟁은 미국은 앞으로 9·11테러 사건의 배후로 지목하고 있는 오사마 빈 라덴을 체포 또는 사살하고, 테러조직을 와해시키며 빈 라덴과 테러를 후원해온 어떤 정권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공격의 강도를 높여 갈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고, 그에 따른 아프칸에 대한 공격은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되고 있다. 결국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한 사람을 대상으로 세계적인 비난을 무릅쓰고 힘겨운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와 국민들은 이 전쟁을 반대하고 있다. 테러로 숨진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애도의 뜻을 나타내지만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또 다른 무고한 생명들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이 전쟁반대의 핵심이며,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는 것이 전쟁반대의 핵심이기도 하다.

세계 강국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무모한 전쟁을 일으킨 미국이라는 곳이 어떤 나라이던가. 그 동안 세계 각국에서 자국의 이익에 따라 전쟁을 일으키고 생명을 무차별 살상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명분 없는 전쟁이 장기화 될 때 자국의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타국의 국민들을 대신하여 전장에 내보낸 나라가 아니던가. 자국의 이익은 챙기지만 절대 손해보지 않는 장사(?)를 해오고, 자국에서는 단 한번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던 그런 미국이 이번에는 바로 자기들의 안방에서 테러를 당했다.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즐기며, 기껏 오락거리로 생각하던 그들이 이번에는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며 전쟁을 일으켰다. 타국민의 이해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논리에서 볼 때 일단 그 동안의 전쟁과는 달리 명분에서는 앞선 듯 하다.

그러나 전쟁은 그 동기와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테러리즘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반(反)생명적인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항구적 자유'로 명명된 이번 전쟁은 테러리즘에 대한 응징이라는 목적을 가졌음에도 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전쟁이며, 그 한 사람을 위해 무고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죽어가도 있다는 것에서 명분이 서지 않고 있다. 또한 전쟁이 장기화되고 민간인의 희생이 늘어날수록 반(反)테러 전선이라는 세계적인 연대가 이완되기 쉬우며, 최악의 경우 이슬람과 서방세계 간 '문명의 충돌'로 빚나갈 수도 있다. 그러면 테러에 대한 대응이 보복테러의 악순환을 부르고 인류사회의 분열로 치달는 사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미국에게는 유리한 점이 거의 없다. 과거의 소련이 경험하였듯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였다고 하여도 협박한 산악지대를 배경으로 하는 게리라전에 능하고 이 지대를 잘 아는 아프간인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반테러전선에서도 아직은 영국이 미국을 대신하여 세계 각국을 열심히 다니면서 전쟁의 당위성을 인정받으려 하고 있지만 영국 내에서도 전쟁반대론이 상당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래가지는 못 할 것이며, 동조하던 아랍권 국가에서도 이슬람권의 단결을 부르짖는 자국의 국민들의 이해를 계속 외면만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 경제적으로도 전쟁에 승리할 경우 무기판매를 통한 경제회복이 가능하겠지만 전쟁에 패할 경우 그 또한 장담하기 힘든 상태이고 전쟁부담금을 각국에서 지원하는데도 세계경제의 어려움이 작용하고 있어 그리 낙관할 상황이 아니다.

반전의 움직임이 이제 전 세계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어 고립되어 가고 있고, 어느 한 면에서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이 계속 이 전쟁을 이끌 수 있을지, 얼마나 갈 수 있을지 관심이 간다.

이제라도 미국은 전쟁을 그만두고 그 동안 자행했던 많은 악행들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는 마음과 사죄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할 것이다. 인류가 공히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어갈 책임을 미국이 먼저 나서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어야 한다.

전통교육을 위한 사이트

편집부

우리 문화를 알아야 된다고 말하면 몇몇 사람은 이미 죽은 문화를 살릴 필요가 있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나는 '당신은 숟가락, 젓가락으로 밥을 먹지 않는가? 집에는 온돌을 깔지 않았는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가?' 라고 반문합니다. 수 천년간의 마을 생활 속에서 형성된 문화요소는 단순히 관념적인 요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서와 몸의 지향으로 깊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국물이 있어야 한다든지, 숟가락과 젓가락을 갖춰야 한다는 음식생활의 문화규범, 온돌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주거에 있어서의 문화규범, 아직도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의 일치를 보장하는 규범인 명절과 제사, 통과의례 등 과거 수 천년간 마을 생활 속에서 발전시켜온 정서와 논리, 관습은 아직도 우리생활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의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무의식 수준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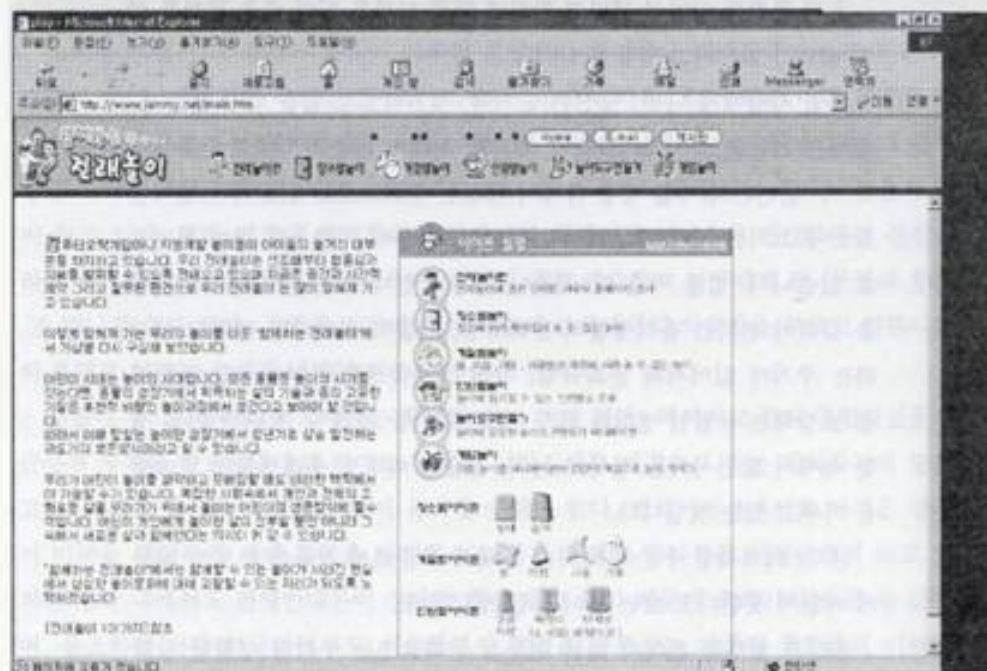
우리가 원하는 원하지 않은 전통적 문화요소는 우리의 생활을 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 봉건적 요소(양반 문화적 요소)를 배제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문화요소를 살려 우리 사회의 운영원리를 새롭게 혁신하는 것이 문화전승과 창조의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홈페이지 중에서-



함께하는 전래놀이

<http://www.jammy.net>



사이트 소개 >>>

컴퓨터오락게임과 지능개발놀이 등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전래놀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선조들의 지혜와 놀이문화를 이해하고 사라져가는 전래놀이를 보급하는 자리로 활용되고 있다.

주요 메뉴 >>>

- 전래놀이란 : 전래놀이란, 전래놀이 특성에 대한 글이 올라와 있다.
- 장소별 놀이 : 실내놀이와 실외놀이, 도구이용놀이, 땅에 선 곳고 하는 놀이 등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으며, 고누, 실뜨기, 쌀보리, 열 발 뛰기 등에 대한 놀이소개와 참가인원 수에 따른 놀이방법 등을 제공 한다.
- 계절별 놀이 :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별로 할 수 있는 놀이를 소개하고 있다.
- 인원별 놀이 : 2명이상, 여럿이, 단체에 따라 모임 인원의 수에 따라 할 수 있는 다른 놀이의 형태를 소개하고 있다.
- 놀이도구 만들기 : 호뜨기 불기, 연날리기, 딱지치기, 봉숭아물들이기, 바람개비 등의 놀이도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며, 준비물 및 놀이도구 만드는 방법을 애니메이션으로 소개하여 따라 만들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 게임놀이 : 편을 갈라 할 수 있는 게임놀이 방법을 애니메이션 등으로 구성하였다. 제기차기의 여러 가지 규칙도 알아볼 수 있다.

유사 사이트 >>>

한국의 민속놀이 <http://my.netian.com/~happycy/>

우리 선조들이 절기와 계절에 맞추어 하던 놀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수록되어있다. 여기서 소개하는 여름철 돌아나는 풍포기의 중간에 우뚝 솟아있는 줄기를 뽑아 누가 더 긴 것을 뽑았나 겨루어 보는 뽕기뽑기와 같은 놀이는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가셔도 쉽게 해 볼수 있는 민속놀이이다.

우리놀이 한마당 <http://mackorea.hihome.com>

우리놀이에 대한 설명이 친절하게 되어있다. 전체보기에 들어가면 가나다순으로 놀이명에 따른 놀이방법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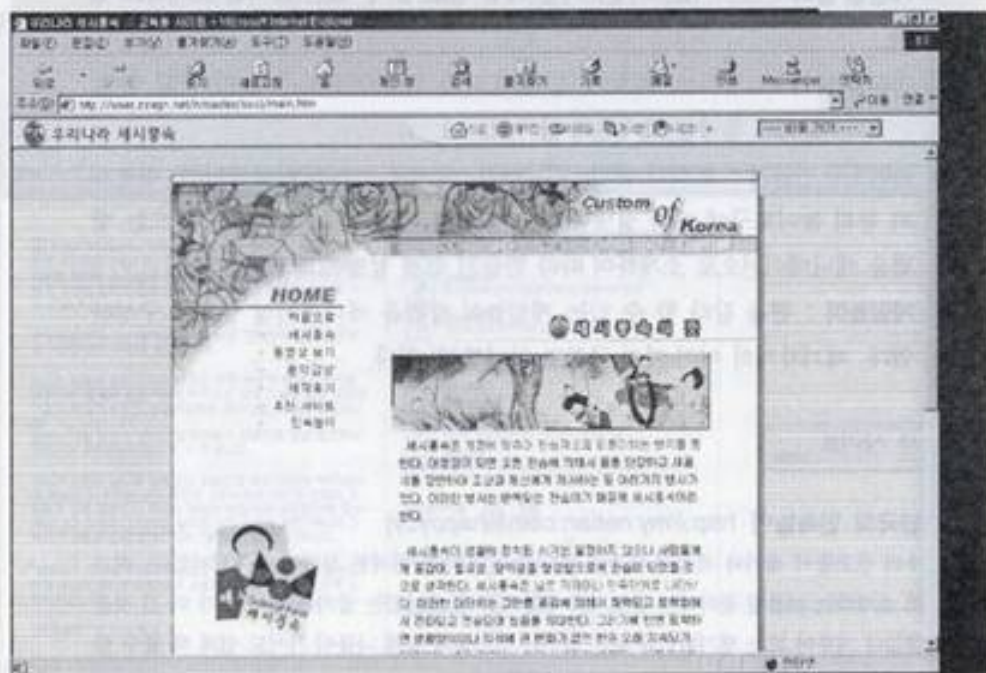
송중대의 놀이공간 <http://my.dreamwiz.com/ddonggan>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래놀이캠프 지도안을 다운 받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세시풍속

<http://user.zzagn.net/nmaster/se>
si



사이트 소개 >>>

고등학교 3학년생이 만든 교육용 홈페이지로 영문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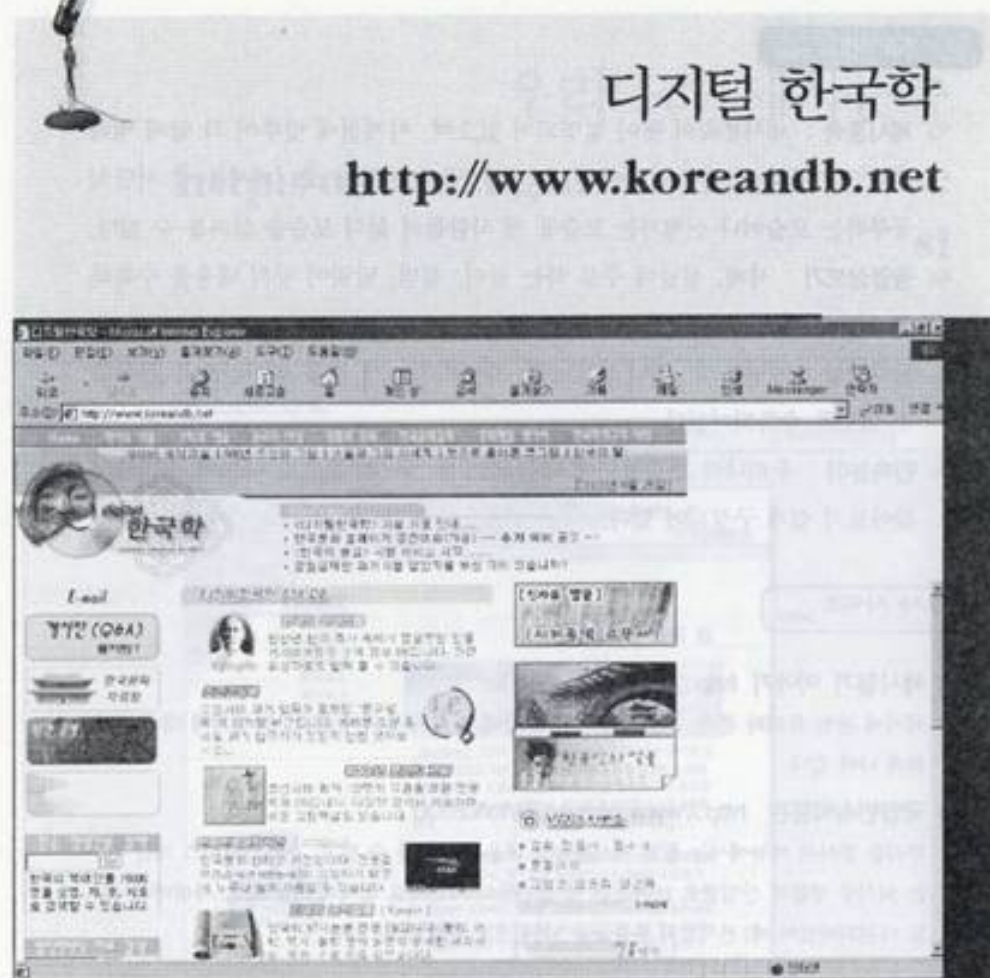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 월별로 이루어지는 세시풍속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 세시풍속과 관련한 음악감상도 할 수 있다.

주요 메뉴 >>>

- ❖ 세시풍속 : 세시풍속의 뜻이 설명되어 있으며, 사계절에 맞추어 각 달에 행해지던 세시풍속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풍속도 감상 코너에서는 옛 서당의 공부하는 모습이나 신행가는 모습등 옛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 ❖ 동영상보기 : 세배, 설날에 주로 하는 놀이, 설빔, 달맞이 등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 ❖ 음악감상 : 설날노래, 연날리기노래, 팽이치기노래 등을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수록되어있다.
- ❖ 민속놀이 : 우리나라 민속놀이에 대한 소개를 1~8 순으로 나누어 소개하여 찾아보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

유사 사이트 >>>

- ❑ 세시절기 이야기 <http://www.hanja.pe.kr/>
세시에 관한 유래와 풍속, 그 날 먹는 음식 등에 대해 수록되어 있고, 24절기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 있다.
- ❑ 국립민속박물관 <http://www.nfm.go.kr/folk2000>
뿌리를 찾아서 메뉴에서는 월별 세시풍속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고, 온라인서비스 메뉴에서는 의식주 생활과 산업별로 쓰여졌던 옛 물건들의 사진자료 검색이 가능하다. 사이버전시실도 마련되어있어 제1전시실의 유물들을 3차원으로 관람할 수 있다.



사이트 소개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 정보센터에서 만든 한국학 정보 사이트. 한국, 한국문화, 한국학에 대한 각종 자료와 정보가 다양하게 올려져 있다.

주요 메뉴 >>>

- 역사와 인물 : 한국의 역대인물, 조선조 방목, 삼국사기, 한국의 왕, 성씨, 가문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인물에 대한 검색도 할 수 있다.
- 문학과 예술 : 500년 조선의 그림에서는 작가별 검색이 가능하며, 한국의 탈 메뉴에서는 한국 탈의 발생과 변천, 종류와 특징, 만드는 방법 등이 수록되어 있다. 사이버 국악교실에서 국악감상을 할 수 있다.
- 생활과 민속 : 한국의 옛 가구, 한국의 명절과 기념일 등을 살펴볼 수 있고 한국의 전통놀이에서는 연령별, 성별로 이루어지던 옛 놀이를 찾아볼 수 있다.

사이트 활용 >>>

- 이 사이트는 우리 나라의 역사와 인물, 성과 가문, 우리 나라의 기념일에 관련된 이야기를 볼 수 있어 관련 단원이나 교육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 우리 나라 문학 및 예술에 대한 소개를 미리 훑어본 후 아이들에게 전하기 쉬운 국악의 음계나 그림 등을 활용한다.
- 탈 만들기 : 탈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되어있어 다양한 탈의 사진을 감상할 수 있으며 직접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
- 한국학 강의 메뉴의 명심보감 강의는 원문에 대한 친절한 해설이 달려있어 가정통신문에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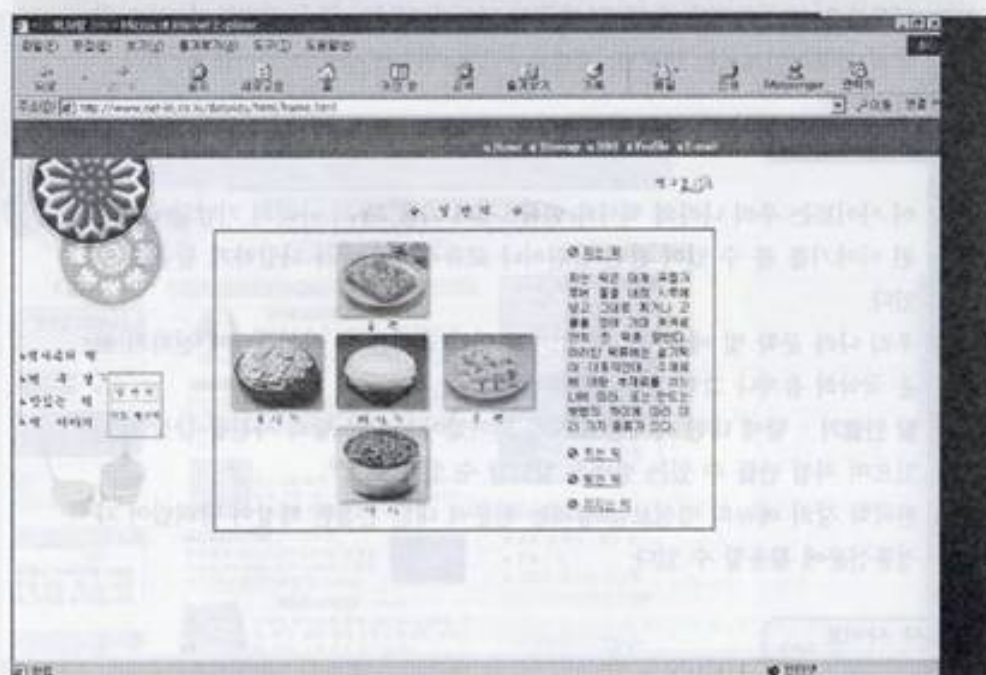
유사 사이트 >>>

- 인터넷 사물놀이 <http://www.samulnori.net>
풍물 관련한 질문사항에 질의 응답을 하는 게시판이 있어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고, 그림 자료실에서는 우리 문화와 관련한 그림들을 찾아 볼 수 있다.
- 디지털 국악신문 <http://www.kukak.com>
즐거운 배움터 메뉴에서 우리 악기코너에서는 우리 나라 악기의 사진과 설명을 볼 수 있으며, 악기 위에 마우스를 대면 악기소리를 들을 수 있다. 팔도민요도 들을 수 있다.



떡사랑

<http://www.net-in.co.kr/dotorido>



사이트 소개 >>>

우리 전통 떡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 개인 홈페이지로 떡의 역사 및 종류별 맛의 특징 등을 수록하고 있다. 메뉴가 간단함에도 떡에 대한 실속 있는 자료와 정보를 주고 있다.

주요 메뉴 >>>

- ❖ 역사 속의 떡 : 떡의 역사, 어원, 떡에 관련된 풍습, 떡 만들 때 쓰이는 전통 조리도구 등이 사진과 함께 소개되어 있다.
- ❖ 떡 구경 : 만드는 방법에 따라 분류해 놓은 떡과 각 지방의 별미떡 사진이 올려져 있다.
- ❖ 맛있는 떡 : 떡 만드는 방법이 과정별로 나열되어 있으며, 떡으로 만드는 요리를 소개하고 있다.
- ❖ 떡 이야기 : 떡이 들어가는 민담과 속담, 떡에 관련된 글이 올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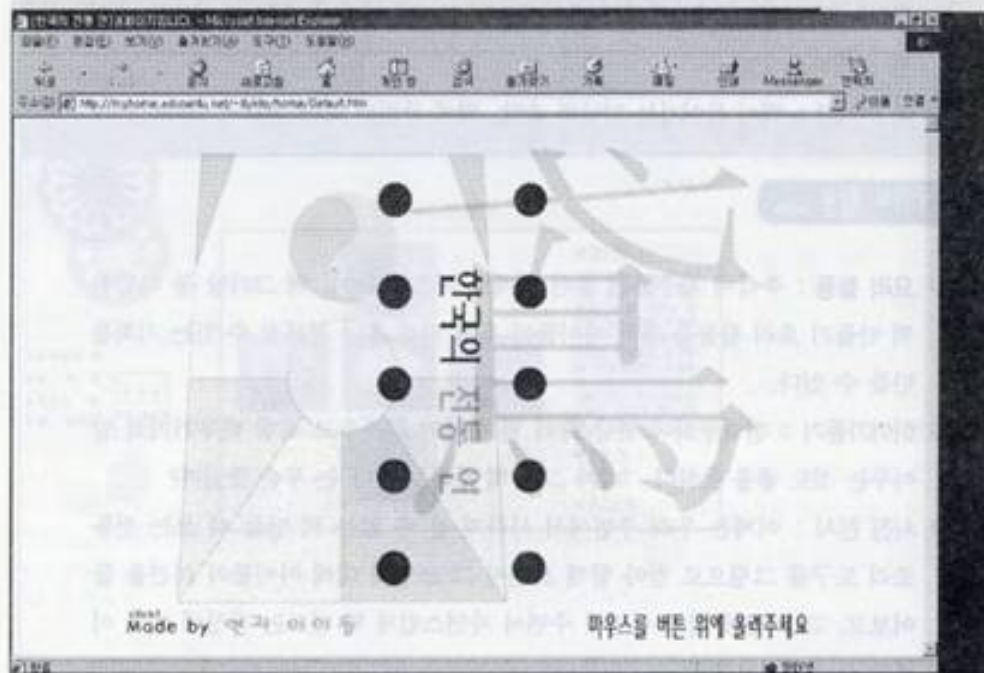
사이트 활용 >>>

- 요리 활동 : 추석에 자주하는 송편 외에도 치즈 떡볶이, 떡 그라탕 등 다양한 떡 만들기 요리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우리 떡과 좀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 이야기듣기 : 전래동화나 민담 속의 떡 이야기 들려주고 속담 한두가지씩 알아두는 것도 좋을 듯하다. "개가 그림 떡 바라듯 한다"는 무슨 뜻일까?
- 사진 전시 :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 볼 수 없는 떡 만들 때 쓰는 전통 조리 도구를 그림으로 받아 함께 보면서 그 쓰임에 대해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기능에 대해 설명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떡 만드는 과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전통 연

<http://myhome.edunet4u.net/~flykite>



사이트 소개 >>>

1999년 전통문화학교로 지정된 충덕중학교 연날리기부에서 만든 홈페이지. 연에 대한 설명과 만드는 방법, 연날리기의 다양한 방법을 알아볼 수 있다.



주요 메뉴 >>>

- 연 : 우리나라 전통연의 기원, 역사, 명칭, 구조에 대해 알 수 있다.
- 연의종류 : 연의 종류를 형태와 문양에 따라 소개하고 있다.
- 연만들어보기 : 연만들기에 필요한 재료와 제작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 연을 날려보자 : 연날리기의 방법, 상식 등을 설명하였다.
- 다양한 놀이방법 : 연날리기의 다양한 놀이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사이트 활용 >>>

- 그래픽지원이 되지 않아 아쉽지만 아이들과 함께 연만들기를 할 때 만드는 상세한 방법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http://www.maul.or.kr>



사이트 소개 >>>

우리 자연과 문화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교육내용 개발 활동을 하는 연구소의 홈페이지. 우리 자연과 문화를 바탕으로 개발된 교육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주요 메뉴 >>>

- ❖ 마을정보의샘 : 국어, 사회, 미술, 음악, 생태, 생활문화, 학급운영 등 주제에 따른 정보샘이 마련되어있어 주제에 따른 교육내용을 내려 받을 수 있다.
- ❖ 마을사랑방 : 잊혀져 가는 우리 옛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있다.
- ❖ 인권사랑방 : 인권에 대한 자유로운 글들을 볼 수 있다.
- ❖ 백두대간놀이 : 재미있게 놀면서 우리 나라 산줄기에 대해 알게 되는 백두대간 놀이에 대한 소개를 볼 수 있으며 주문도 할 수 있다.
- ❖ 우리강산 : 연구소에서 제작한 책인 「우리 강산 가슴에 담고」의 소개를 볼 수 있으며 주문도 할 수 있다.

사이트 활용 >>>

- 학령기아이들을 위한 내용이 추가 되어 직접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문화를 지금의 유아교육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korea insights

<http://korea.insights.co.kr/korean/>



사이트 소개 >>>

한국의 전통적인 생활과 자연을 비롯하여 생활과 문화 예술 등의 한국의 이미지들이 망라 되어 있다.

대부분의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다.

'우리네 아이들' 을 말한다.

주요 메뉴 >>>

- ☞ 생활 : 의, 식, 주, 통과례, 절기, 시장, 명절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의생활에서는 여성과 남성한복의 사진을 볼 수 있다.
- ☞ 자연 : 산, 강, 섬, 식물/동물, 지질/광물, 천연보호구역 등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식물과 동물에서는 자생하는 우리 나라의 식물과 동물의 사진을 볼 수 있다.
- ☞ 공연예술 : 한국인의 옛소리, 악기소리, 전통음악, 무용, 마당극에 관련한 사진과 설명을 볼 수 있다.
- ☞ 스포츠 : 수백치기, 태권, 씨름, 태권도 등의 정신과 기본동작에 관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 ☞ 한국인 : 인간문화재, 예술가, 위인, 오늘의 한국인 등에 대한 설명과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 ☞ 사상종교 : 한국인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상과 종교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다.
- ☞ 유물/유적 : 시대별, 문화권별로 문화유산을 찾아 볼 수 있다.
- ☞ 한국의 이미지 : 상징, 색, 선, 문양 등의 이미지를 볼 수 있다.
- ☞ 아이들세상 : 옛날이야기 마당, 오락실, 우리옷장, 먹을거리 장터, 우리들의 집, 이런 날 기념해요 코너 등이 있다.

사이트 활용 >>>

- 각 메뉴에는 활용하기에 적당한 사진이나 이미지가 있어 시청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특히 '이미지' 메뉴는 태극기, 무궁화 등의 상징이나 번개, 연꽃무늬 등 전통적인 문양 등이 선명한 사진과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어 그림 그리기나 찍기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 아이들 세상 메뉴에는 한국의 전통에 대해 아이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사진과 간략한 설명이 들어있다.
- 아이들 세상 오락실 코너에는 우리 나라 지도와 태극기의 퍼즐게임, 한복 옷 입히기 게임을 활용할 수 있다.

유사 사이트 >>>

- 한국전통가옥 www.axisoft.co.kr/qtvr/khmain.htm
한국의 전통가옥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남산골 한옥촌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다.
- 한국의 전통부엌 myhome.cjdream.net/taijigenius/
전통적인 부엌의 구조와 부엌살림 사진이 들어있다. 옛날에 쓰이던 도식과 주전자의 사진과 요즘 쓰이는 물건을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다.

'우리네 아이들' 을 말한다.

편집부



지난 호 '우리네 아이들' 을 발송하며 '우리네 아이들' 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설문지도 함께 동봉했습니다.

우선 설문지에 성의 있게 답변해서 보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의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설문지에 모두 22명이 답변해 주었고 이 중 정회원이 가장 많이 응답해 주었고 준회원과 자료회원 몇 분도 응답해 주었습니다.

우리네 아이들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보육정책' 을 제일로 꼽았으며 그 다음이 '현장교육' 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보충했으면 하는 내용으로는 현장에서 연구되는 현장교육활동, 교육자료 소개와 육아 상식, 현장교사의 목소리 등이었습니다.

이 외에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는 격려의 말씀과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우리네 아이들 중 가장 즐겨 읽는 코너는 정회원과 자료회원이 조금 달랐습니다. 정회원의 경우 회원 소식판이나 인물담방기, 현장교육 등 현장활동과 다른 회원들의 글을 주로 읽으며 자료회원이나 준회원의 경우는 보육정책, 현장교육 등을 즐겨 본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읽는다는 의견도 2명이나 있었습니다. (이 순간 호 못해지는 편집부입니다.)

「현장을 클리어해드림」

즐거워 읽지 않는 코너로는 보육정책이 다수였으며, 현장에 있지 않은 구독자들은 현장교육을 읽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보육정책란은 재미있게도 인기 코너와 비인기 코너 1순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즐겨 읽지 않는 코너는 없다는 응답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다시 한 번 흐뭇!)

마지막으로 제안사항으로는 매월발간, 현장교육란 보강 등과 우리네 아이들을 널리 홍보하는 방법도 알려주었고, 곳곳이 지켜달라는 격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설문지 한 장 한 장을 읽어보며 '우리네 아이들'을 기획하며 완성화된 제 자신을 반성하기도 하고 현장에서 어렵게 어렵게 글을 보내서 우리네 아이들을 함께 만든 분들에 대해 고마움도 느끼고 우리네 아이들이 보육현장에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의견처럼 더욱 노력하여 보육활동의 질잡이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 혹 제가 전화해서 원고 청탁을 하더라도 부디 단칼에 거절하지 마시고 현장의 목소리들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네 아이들이 만들어지기까지 좋은 글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과 여러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오늘의 우리네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제6차 총회 및 겨울 수련회 안내

수련회 일시: 2002년 1월 26일 오후 4시 ~ 27일 오후 1시

수련회 장소: 부천 북사골문화센터 6층 북사골연수원

참가비: 경인지역 2만원/ 기타 지역 1만원

제6차 정기총회 및 수련회 프로그램

	첫째날(1/26)	둘째날(1/27)
오전 8:00-9:00		기상, 식사
9:00-12:00		정기총회
12:00-12:30		인터넷공모전 시상식
		폐회식
오후 5:30-6:00	접수	
6:00-6:50	저녁식사	
7:00-7:10	개회식	
7:10-8:00	보고회	
8:00-8:20	조직논의 과정 보고	
8:30-10:30	조별 토의 우리 회의 중장기 계획	
10:30-12:00	우리 모두 하나 되어	
12:00-	취침	

*정규 프로그램 이외에도 풍성한 현장연구 전시회와 깜짝 퀴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총회 장소 찾아오는 방법

지방에서 오는 경우: 영등포역에서 하차 → 인천행 전철 타고 송내역에서 하차 → 북광장으로 나와서 도보로 직진 → 부천 북사골연수원

경인지역: 인천행 전철 타고 송내역에서 하차 → 북광장으로 나와서 도보로 직진 → 부천 북사골연수원

어린이 음악회 '꾸러기 음악회'

일시: 1월 26일(토) 11시~5시
장소: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대공연장
관람료: 33,000원 (공연비, 팝콘, 음료, 점심, 교통비 포함) / 어른 30,000원
행사진행안내: 11시 최신일 단무장님의 클래식에 대한 해설, 악기를 만져볼 수 있는 시간 / 11시40분 점심시간 / 12시10분 리하설 관람, 지휘자 강신태씨의 공연에 대한 해설, 기념 촬영 / 1시10분 자유시간 / 2시 공연관람
참가 방법: 말뚝이로 전화신청
신청기간: 1월 20일까지이며, 인원수 제한 없음
문의 및 신청: 011-9940-2650 (권희정)
※ 차량은 강북지역, 강남지역, 일산에서 출발합니다.
자세한 출발시간, 장소는 개별 통보하여 드립니다.

'우리 전통 놀이' 전

일시: 1. 3(목)~2. 9(토) / 10시30분~6시
장소: 갤러리 사바나
입장료: 어른 1,000원 · 어린이 500원
☎ 736-4371

줄인형 콘서트 <띠용이와 떠나는 환경 캠프> (현대인형극회)

우리 주변 환경의 중요성을 재활용으로 만들어진 줄인형을 통해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공연이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렸던 띠용이는 쓰레기 괴물에게 고통을 당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다. 그러자 주위의 사물들이 하나씩 인형친구로 변한다. 공연이 끝나고 재활용 활용하는 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곁들여진다.
일시: 1. 19(토)~2. 3(일) / 11시30분 · 1시30분
장소: 연강홀 ☎ 708-5001
입장료: 어른 5,000원 · 어린이 7,000원

마당을 나온 암탉 (극단 민들레)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이 원작으로 '알을 품어 병아리를 탄생시키는 것'이 유일한 소망인 암탉, 오리를 자기 새끼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암탉, 죽기 직전에도 '날고 싶다'는 또 다른 소망을 갖게 되는 암탉 '일찍' 이를 다룬 연극이다.
놀이터를 변형한 무대, 다양한 소품의 활용, 인형극 · 물체마임극의 요소를 도입하여 입체적인 다양한 표현을 시도한다. 아카시아 꽃이 날리는 마지막 장면에서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색다른 무대가 될 것이다.
일시: 1. 23(수)~2. 17(일)
오후 2시 · 4시(첫날 2시, 2. 11(월) 공연없음)
장소: 문예회관소극장
입장료: 일반 12,000원 · 어린이 10,000원(사람의 티켓참가제)
☎ 7665-210, 3663-6652

교사교육 '어린이집 환경 구성'

일시: 2002년 02월 06일(수요일) 14:00~17:00
장소: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교육실
대상: 보육시설 종사자 70명

교사교육 '상담 기법'

일시: 2002년 02월 20일(수요일) 14:00~17:00
장소: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교육실
대상: 보육시설 종사자 70명
문의: <http://children.seoul.go.kr/13.html>
※ 교육신청은 교육일 30일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레지오 에밀리아 전시회

어린이와 교육의 새로운 문화
어린이들의 수많은 언어
THE HUNDRED LANGUAGES OF CHILDREN
일시: 2002. 1. 8. ~ 2. 8
장소: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별관
주최: 세계유아교육기구(OMEF) 한국위원회
주관: 한국레지오교육연구회
후원: 주한 이탈리아문화원
문의: 한소현 schhan@korea.com
입장권 안내: 일반 10,000원 / 단체예매 6,000원 (단, 20인 이상) / 개인예매 8,000원
❶ 교육관람 ❶
전시회 기간 중 전문가의 해설, 현장교사 참여 토의 등과 함께 교육관람이 진행됩니다.
교육관람은 예약을 통해서 매회 선착순 30명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 전시회 기간중 매주 월, 목 오후 5:00 ~ 오후 7:00
참가비: 15,000원 (입장료, 전시자료 포함)
교육관람 예약문의: TEL 02-421-3728, 02-416-2581

음악을 통한 유아교육 <김성균 교수> 세미나

일시: 2002. 2. 2(토) 14:00~18:00 (4시간)
장소: 여성발전센터 3층 대공연장(상무지구 내)
주최: 광주보육정보센터
주제: 음악을 통한 유아교육1
강사: 김성균
개인준비물: 5색 형광펜 1통, 리듬막대, 소고
교육비: 25,000원(교재비 포함)
입금계좌
- 농협 246-01-006961 예금주 김정음(보육정보센터)
- 광주은행 420-107-018559 예금주 김정음 (보육정보센터)
교육신청: 입금후 전화 접수(T. 062-973-7010)

교사교육: 환경구성에 관련된 작품 강의

예) 날짜판, 찻숟가락, 생일카드, 생일관, 봄환경구성
강사: 박경애, 성용희, 이미정선생님
일시: 2002년 2월 5일(화) 오후 7시 30분
장소: 울산광역시 보육정보센터
문의: 박경애 018-550-9632, 장미경 011-9511-5688
울산보육정보센터(장서관련문의) 266-4173

교통공원 교육

주관: 광주 북부 경찰서 교통과
대상: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생
교통기간: 연중실시(토요일 오후 공휴일 제외)
인원: 1일 300명(오전 15명, 오후 150명)
교육시간: 오전 (10:00~12:00) 15명
오후 (13:00~18:00) 150명
교육방법
- 실내교육: 교통안전의 생활화, 교통과 관계있는 사람, 교통사고 원인과 방지책을 시청각 및 강의, 전시실에 비치된 각종 교통 관련 홍보물을 통하여 교육
- 실외교육: 교통표지판 숙지, 도로횡단, 교통수단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험지역 통행방법 등을 학습영역별로 현장 체험위주의 교육을 실시
어린이 교통공원 교육예약 절차
어린이 교통공원 교육예약은 2002년 1월부터 선착순에 의해 전화로 접수
전화번호: ☎ 062-972-0053 (F. 062-972-0053)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1113번지

중앙소식

- 11월 7일 전국어린이집·놀이방에서 주최한 <전국어린이집·놀이방 교재교구공모전>에서 교구심사를 이윤경대표가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심사하였습니다.
- 11월 8일 순천향대학 사회복지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보육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이윤경 대표가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 11월 9일 '반전평화여성행동' 1인 시위가 미대사관 앞에서 있었습니다. 본회에서는 이경녀 사무국장이 참석했습니다.
- 11월 10일 '관악지역의 바람직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부모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본회에서 이경녀 사무국장이 참석했습니다.
- 11월 13일, 20일 교육센터 가을강좌 '보육의 지평을 넓히자 I -가족복지 지원자로서 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세'가 있었습니다. 강의를 해 주신 이윤경 대표와 김운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11월 15일 어린이집의 건강관리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건강교사모임이 있었습니다.
- 11월 16일 여성연합의 사무국장 연석회의에 이경녀 사무국장이 참석했습니다.
- 11월 17일 여연복지위 가족분과회의에 이윤경 대표가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11월 20일 여연이사회에 이윤경대표가 이사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11월 22일 만5세아 무상지원대상을 학원

까지 포함하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의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상정에 따른 대책회의가 전교조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는 대책회의 제안단체로 이윤경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11월 23~ 25일 '가족복지 지원을 위한 보육사례나눔 및 지역간 네트워크형성을 위한 보육실무자연수'가 아이들과 미래의 후원으로 지리산과 남원에서 실시되었습니다.
- 11월 26일 만5세아 무상교육지원 학원확대에 대한 반대성명서(60여개 단체서명) 발표와 기자회견이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있었습니다. 본회에서는 이윤경공동대표가 참석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11월 30일 서울시보육위원회회의에 이윤경공동대표가 보육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내년도 서울시 보육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모범 시설 선정에 대한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이윤경공동대표는 이 자리에서 모범시설 선정이 실제로 보육시설의 질을 향상하고 발전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의 마련과 특히 운영상의 기준보다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적 평가가 더욱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 12월 1일 EBS(교육방송) 난상토론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현시기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문제에 대

한 과제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윤경 대표는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성 확립을 위한 예산지원과 질 관리 시스템의 마련이 되어야 하며, 보육정책을 조정, 협력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산하에 복지부, 교육부, 여성부, 노동부,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전문가 및 관련단체가 포함된 정책기구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12월 3일 복지부에 2002년도 보육사업안 내 개정 건의안을 복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국공립시설 위탁선정 시 보육전문가, 보호자대표,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을 구성하여 공개된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 채용 시 부당 계약(서면, 또는 구두 계약 포함)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예)결혼, 출산 시 퇴직요구 등) ③ 보육시설종사자 급여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급여기준을 따르되 시설의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그러나 자율적으로 정하되 기준을 미달하여 지급할 수 없다.
- 12월 8일 '보육교사 처우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보육교사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개선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후 2시 ~ 4시까지 세종문화회관 4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윤경 대표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김종해(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의 발표와 김영연(전교조유치원위원회 사무국장), 왕인순(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정책위원장), 진귀수(전국 어린이집·놀이방 연합회 회장), 김미나(씩씩이어린이집 교사), 김실이(근로복지공단 안산어린이집 교사)님이 토론해 주셨습니다.



- 12월 10일 여성개발원에서 주최한 보육사업발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12월 15일 제2차 총회준비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2001년 사업 평가를 했습니다.
- 12월 20일 총년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선배님들 정말 반가웠습니다.
- 12월 24일 갯골어린이집에서 주최한 <보육사업정책방향과 보육교사의 역할>을 주제로 한 교사교육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강사로 참석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12월 26일 정책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2001년도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와 2002년도 정책위 운영에 대한 평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12월 27일 경기도사회복지사업회가 주관하고 경기도에서 주최한 경기북부 복지담당자 워크샵에서 이윤경 공동대표가 "생산적 복지와 보육"이라는 주제로 주제발

표를 진행하였습니다.

- 12월 28일 복지부에서 주최한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관련 보육관련단체 대표 연석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해 각 단체가 협력할 것과 발의된 유아교육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법 조항에 대한 문제제기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가 논의되었습니다.
- 12월 29~30일 총회준비위 제3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부 소식

서울지부

- 11월 17일 오감살리기 미술소모임이 어깨동무어린이집에서 모였습니다. 지난 1개월간 어린이집에서 활동한 내용 보고와 이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 12월 1일 총회가 있었습니다. 지부장으로 김진숙 선생님과 사무국장으로 황호정 선생님이 연임하게 되었습니다.
- 문화홍보부의 송년모임이 있었습니다. 1년간 지부소식지를 발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인천지부

- 11월 10일 회원의 날이었습니다. 보육조례 공청회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 11월 17일 부평구청대회의실에서 '보육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인천지부는 이 행사에 공동주최하였고,

- 이인희 지부장이 '보육조례의 필요성과 의미'라는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 12월 11일 '인천시 보육정책'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으며 이인희 지부장이 참석했습니다.
- 12월 14일 나래어린이집에서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경기지부

- 부천시에서는 2002년부터 민간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 12월 22일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영선 선생님이 다시 지부장으로 당선되었고 박부자 선생님이 교육부장, 고영미 선생님이 조직부장이 되었습니다.

광주전남지부

- 12월 16일 총회를 마쳤습니다. 새로운 지부장에 김영금 선생님이 당선되었고 교육부장에 김경아, 사무국장에 박은경, 회계에 김세정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대구지부

- 12월 20일에 총회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그간 대구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한 장애통합 수업에 대해 자료 정리를 중요사업계획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부산지부

- 사무실 개조 비용 마련 바자회를 열었습

니다.

- 금정구지회가 새로이 탄생했습니다.
- 2002년 1월 13일에 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녹색도시 부산21 공모실천사업 결과발표회에서 지난 1년간 부산지부에서 실시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생태환경실천교육사업>이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사람과 사람들

축하합니다

- 서울의 박상희 선생님이 무사히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임신을 하고서 몸이 좋지 않아 하던 일도 그만두어서 걱정했는데 건강하게 아이를 낳았다니 축하합니다.
- 부산의 이은정 선생님이 11월 30일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들이고 임주현이라고 합니다. 축하합니다.
- 인천의 위준임 선생님이 12월 16일에 춘천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예쁘게 사세요.
- 올해 부산은 운전면허자격증 취득 붐이 불었나 봅니다. 박경미 샘(1종 보통), 김경혜 샘, 임정숙 샘(1종 보통), 김향진 샘(1종 보통)으로 면허를 땀습니다. 다들 1종보통인 걸 보니 나중에 혹시 모여서 트럭으로 야채장사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히히

- 부산의 김정애 선생님이 아기자람터 자모회의 임원(서기)으로 선출됐습니다. 제가 소식지 만들면서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부모회 임원됐다고 축하하기는 처음입니다. 어쨌든 한 번 잡은 권력 잘 휘두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력 오래 잡기를...

- 부산의 김양희 선생님이 2002년에도 동래지회장을 다시 맞게 되었습니다. 분명 축하할 일이지요? 2002년에도 수고하세요.

- 부산의 한혜정 작가님이 올해도 어김없이 사진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축하하구요. 보내주신 선생님의 작품이 담긴 달력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산의 김숙연 선생님이 10월 30일에 반디 놀이방 개원식을 했습니다. 이젠 새로운 시작을 했으니 열심히 활동하세요.

건강하세요.

- 지난 연말 임신 중이던 아이를 사산하고 임신중독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광주 박화명 선생님이 이제 의식도 회복해서 배가 고프다는 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조만간 일반실로 옮겨질 거라는 반가운 말도 들리는군요. 아마 화명 선생님의 강인함이 병을 이겨내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기도하며 힘을 보태서 더 빨리 극복하리라 생각합니다. 얼른 일어나세요.

- 부산의 김영수, 안미경, 박희순 선생님.

광주의 박미영 선생님, 대구의 정혜정 선생님, 인천의 이상미 선생님, 경기도의 손수정 선생님 모두 건강한 출산을 기원합니다.

- 부산의 김순아 선생님이 라식 수술의 일종인 라섹 수술을 하고 회복을 위해 집에만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만났을 때 안경을 끼지 않아 시력이 좋은 줄 알았더니.... 곧 밝은 세상이 기다리겠군요.
- 부산의 박찬주 선생님이 영치뼈가 아파서 한방치료를 받고 있다는군요. 빨리 낫길 바랍니다.

잘 사세요.

- 서울의 우리아이들의 나라 우리어린이집이 12월로 정리하고 공동육아 행복한 어린이집으로 전환했습니다. 정리와 출발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운내시고 힘차게 출발하세요.
- 부산의 정은아 선생님이 12월22까지 일하고 함께 노는 어린이집을 정리했습니다. 2002년은 새로운 출발을 하는 해가 되겠네요. 힘차게 출발하세요. (결정되면)
- 서울의 박정애 선생님의 아들과 남편이 지난 가을 리얼코리아라는 TV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것도 외발 자전거 타기 동호회로 말이죠. 혹시 보신 분 있나요? 박정애 선생님도 출연했다고 하던데...

환영합니다.

- 부산의 전정하, 김인숙 선생님이 신입회원 가입을 하셨습니다. 보육교사회에 들어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회비를 내셨습니다.

- 서울지부(11월) 완납
인천지부(11월) 완납
광주지부(9월) 완납
대구지부 10만원
<평생회원>
최순옥 1차 5만원
<회원회비>
박말신 20만원, 서은희 5만원, 서형주 2만원, 김실이 2만원, 조용란 1만원
<자료회원>
박정희, 이미애, 이정님, 건양대학교, 어린이육영회
<후원해 주셨습니다.>
박정애 3만원, 윤선영 30만원, 서은희 50만원, 은수미 2만원, 김희자 1만원, 박인혜 5만원, 왕인순 3만원, 김미나 3만원

본회 11·12월 월행일지

11월

4~6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수련회
11월 6일	집행위 회의
9일	'반전평화여성행동' 1인 시위
13일, 20일	교육센터 가을강좌
15일	어린이집의 건강관리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건강교사모임
16일	여성연합 사무국장 연석회의
17일	여연복지위 가족분과회의
19일	집행위 회의
20일	여연이사회
22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상정에 따른 대책회의
23~25일	'가족복지 지원을 위한 보육사례나눔 및 지역간 네트워크형성을 위한 보육실 무자연수'
26일	만 5세아 무상교육지원 학원확대에 대한 반대성명서(60여개 단체 서명) 발표와 기자회견

12월

12월 3일	2002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 건의안 제출
5일	집행위 회의
8일	보육교사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개선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15일	제2차 총회준비위 회의
20일	송년회
23일	집행위 회의
26일	정책위원회 회의
29~30일	총회준비위 제3차 회의

편집부에서

지난 연말부터 끊이지 않던
걱정스런 소식들이 이제는
기쁨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
니다.

걱정스런 소식들을 접하면
서 나의 무사함이 우리 가
족, 우리 회,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얼마나 기
쁜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
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쁜 일들
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요.

다만, 사는데 지쳐서 그 가
치를 못 느꼈던 것이지요.

올해는 일상의 평범함에 들
어 있는 기쁨을 찾는 여유를
가져야겠습니다.

교사 선언문

1. 보육교사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자주성을 갖는다.
1. 보육교사는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교육에 임한다.
1. 보육교사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1. 보육교사는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정치,문화활동을 한다.
1. 보육교사는 '어린이 인권'을 소중히 하고 '인권보육'을 실천한다.
1.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국토의 소중함,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알도록 교육한다.
1.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보육교사와 보육문제에 관심있는 분을 회원으로 모십니다.

○ 정회원이 되면.....

- 매월 1만원+회(연회비 12만원과 자부/지회별 일정회비)를 납부합니다.
- 자부, 지회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정회원의 권리로써 사업에 대한 의견권과 선거권/피선거권을 갖습니다.
-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회 중앙과 지부에서 주최하는 교육행사 참여시 회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회 지부/지회에서 운영하는 각종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본회에서 발간하는 자료집이나 판매자료 구입 시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회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준회원이 되면.....

- 연 6만원의 회비를 납부합니다.
- 중앙 및 지부, 지회의 소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자원회원이 되면.....

- 연 3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며
- 격월 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 1년 구독과 본회에서 주관, 주최하는 각종 강좌와 행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회원이 되면.....

-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비납부는

국민은행 019-21-0952-190 이윤경으로 입금하시고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02-2275-8505)

| 이런 일을 합니다 |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 발전하는 보육 한국보육교사회

- 보육프로그램, 보육정책/제도 연구, 개발
- 보육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
-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 및 다양한 전문소모임 운영
- 국내보육관련 단체, 사회단체와의 다양한 연대활동
- 보육관련 국제교류활동
- 교사들의 현장연구 및 자주적 활동
- 격월간지 '우리네아이들', 보육관련 자료 발간
-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본회활동 및 보육관련 정보 제공
- 어린이문화, 어린이인권 보장을 위한 제반 활동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 보육관련 자료 및 책자 발간
- 보육종사자 교육
- 보육관련 연구 활동

부설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전화 02-2275-8505 / 전송 02-2275-8506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kdta.or.kr> / e-mail: kdta@chollian.net

한국보육정보연구소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전화 02-2268-3954 / 전송 02-2275-8506 / wawbest@jinbo.net